

16일 Market Index			
↑ 코스피	5549.85 (+62.61)	↓ 코스닥	1138.29 (-14.67)
↓ 금리 (연이자율)	3.300 (-0.038)	↑ 환율 (원/달러)	1499.00 (+5.30)

metro 경제



삼성전자, 이익잉여금 400조 '투자 실탄' 충전

이익잉여금 전년 대비 8.5% 상승
순현금 100조... 재무여력 강화
작년 R&D·시설투자 90.4조 투입
화성·평택 사업장 D램 공정 전환
신규라인 증설 등 생산능력 확보

삼성전자의 이익잉여금이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섰다. 순현금 역시 3년 만에 100조원을 돌파한 가운데, 축적된 유동성을 기반으로 차세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 행보가 확대될 전망이다.

16일 삼성전자 2025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이익잉여금은 402조 1356억원으로 전년 370조 5131억원 대비 약 8.5% 상승했다. 2024년(346조 6522억원)과 비교했을 때도 증가한 수치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재무 여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순수익이 사내에 축적된 자금을 의미한다.

삼성전자의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규모는 약 125조원 수준으로 차입금을 제외한 순현금도 100조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회사의 현금 보유 규모가 확대되면서 향후 투자 여력도 커질 것이라는 시각이 제기된다. 쌓아둔 현금을 바탕으로 신규 투자나 인수합병(M&A) 등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구개발(R&D) 분야에 역대 최대 규모인 37조 7000억원을 투입했으며 시설투자(CAPEX)에도 52조 7000억원을 집행하며 기술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러한 투자는 AI 시장 확대에 따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고용량 DDR5 등 차세대 반도체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한 HBM4를 통해 AI 반도체 시장에서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는 지난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중심으로 총 52조 7000억원의 시설투자를 집행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다. 경기 기흥 캠퍼스에 건설 중인 최첨단 R&D 복합단지 'NRD-K' 등 미래 생산 기반 확보를 위한 투자도 지속 중이다.

아울러 경기 화성사업장에 차세대 D램 공정 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규 생산라인 증설도 병행하고 있다. (2면에 계속)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케데헌 '골든' 2026 아카데미 최우수 주제가상
이재(EJAE)가 1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OST '골든'으로 최우수 주제가상을 받은 뒤 공식 뒤돌이 '거버너스 볼' 행사에 참석해 트로피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관련기사 L4면) /AP·뉴시스

'1500원' 환율 뉴노멀?... 韓 경제 충격

중동사태 장기화 후폭풍 국제유가 100달러 수준 폭등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달러당 1500원선을 위협하고 있다.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유가 상승이 지속된다면 국내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에 원화값이 하락했다. 환율 변동성을 우려한 정부가 구두개입을 지속하고 있지만 환율 상승 요인이 여전히 고환율 국면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기사 2·3면)

◆ 달러당 '1500원' 목전

16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97.50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거래일 주간거래보다 3.8원 오르며 달러당 1500원선을 목전에 뒀다. 이날 환율은 장 초반 달러당 1501원까지 상승했는데, 달러가 주간거래 장중 1500원을 넘긴 것은 금융위기 당시인 지난 2009년 3월 12일이 마지막이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것은 '중동사태'가 장기화하면 국내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에서다.

석유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동사태 직전 배럴당 60달러 수준이었던 국제

유가는 최근 배럴당 100달러 전후에 거래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사태'의 종전이 임박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의 정유시설이 위치한 하르그섬을 겨냥한 미군의 폭격과 미 해병대의 중동 파병 소식이 전해지는 등 '중동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한국은 원유의 70~80%를 중동에서 수입해 정제한다. 이번 유가 상승에 원화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다.

(3면에 계속) /만승진 기자 asi1231@metro

삼성SDI, 1.5조 ESS 배터리 수주... 북미 공략 속도

올해부터 4년간 단계적 물량 공급 NCA 시작으로 LFP 순차공급 계획

삼성SDI가 미국 에너지 기업과 1조 5000억원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하며 북미 ESS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성SDI는 16일 미주법인 삼성SDI 아메리카(SDI America)가 미국의 에너지 전문 기업과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규모

는 약 1조 5000억원이며 올해부터 2029년까지 단계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배터리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위치한 삼성SDI-스텔란티스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SPE) 공장에서 생산된다. 삼성SDI는 NCA(니켈·코발트·알루미늄) 배터리를 시작으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주력 제품인 삼원계 배터리뿐 아니라 LFP 배터

리까지 제품군을 확대하며 ESS 시장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삼성SDI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라 ESS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미국 에너지 인프라 개발·운영 기업과 2조원을 웃도는 규모의 ESS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4면에 계속) /원관희 기자 wkh@metro

오가노이드 기반 장질환 재생치료제 세계 첫 임상 진입

국내 기업이 만든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임상 단계에 진입한다. 난치성 장질환 치료 패러다임을 바꿀 차세대 재생치료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할 것이라 기대가 높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자가 성체줄기세포 유래 장 오가노이드 치료제 아톰(ATORM)-C의 대장 궤양을 동반한 크론병 환자 대상 1상 임상시험계획(IN D)이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로부터 승인됐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에 신청된 이후 약 3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세계에서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임상시험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다.

크론병은 만성 염증성 장질환으로 장 점막에 반복적인 염증과 궤양이 발생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장내 궤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궤양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장 협착, 천공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진행될 수 있다. 현재 다양한 약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만성질환의 특성상 상당수의 환자에서 치료되지 않은 궤양이 남아 질환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은 한계가 있었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아톰-C' 난치성 장질환 치료 새 패러다임 줄기세포치료제 진일보 치료법

ATORM-C는 환자의 장 조직에서 추출한 조직유래 줄기세포를 3차원 오가노이드 배양 기술로 제조한 '장 오가노이드'가 주성분이다. 이 치료제는 손상된 장 점막 조직의 재생을 유도해 기존 치료제에 반응하지 않고 남아있는 난치성 궤양을 치료함으로써 장내 염증을 줄이고 질환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ATORM-C는 손상된 장 점막 부위에 직접 이식되어 실제 장 상피세포로 분화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의 재생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기존 줄기세포치료제에서 진일보한 차세대 치료법이다.

이번 1상 임상시험에서는 ATORM-C 투여 후 내약성과 안전성을 평가하여 최대내약용량(MTD) 및 제2상 권장용량(RP2D)을 결정하고, 동시에 탐색적 유효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임상시험에는 총 9명에서 18명의 환자가 참여할 예정이며, 약물 투여 후 24주까지 추적 관찰하며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인하게 된다.

임상시험은 우리나라 염증성 장질환 분야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환자와 진료 경험을 갖춘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다. (2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metro

메트로 한줄뉴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단 책임명 보류... "일부 우려 목소리" /사진 뉴시스
▲이인제 "김영환 컷오프는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공정 경선 촉구

▲김 총리, 방미 중 원격 간부회의...경제·사회 현황 점검·지시
▲정청래 "대구시장 후보 추가 접수 필요할 수도"...'김부겸 차출론' 계속

▲與, 국힘 이장우·김태흠 단수공천에 "절운" 외쳤지만 친윤 공천
▲與, '성추행 의혹' 장경태 징계 심사 연기... "수사심의위 개최 고려"

위험자산 회피 심리 확산... 회사채 금리 등 기업 부담 커져

중동사태와 경제리스크

③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글로벌 자금이동·투자심리 위축
회사채 금리 상승... 3.9%대 진입
금융당국, 채권 등 시장상황 점검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환율과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가운데 그동안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국내 자금시장에도 긴장감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자금이동과 투자 심리 위축이 맞물리며 자금시장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16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회사채(무보증·AA-·3년물)의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3.926%로 집계됐다. 중동 지역 긴장이 본격화하기 전 2월 27일 3.633%였던 것과 비교하면 0.293%포인트(p) 상승했다.

회사채 금리는 기업이 채권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때 부담하는 비용

회사채(무보증·AA-·3년물) 금리 추이



보여주는 지표로,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심리가 강화되면서 회사채 등 신용채권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단기자금시장에서도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업의 단기 자금조달 상황을 보여주는 CP(A1·91일물)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 3.10%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큰 변동은 없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단기 자금시장 금리에도 상승 압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들은 운영자금 확보나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CP발행 등 단기자금 조달 수단을 활용한다. 단기 자금시장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단기 자금조달 비용도 늘어날 수 있다.

신용채권 금리에도 상승압력이 작용할 수 있다. 신용스프레드는 회사채 금리와 국고채 금리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표로 시장 불안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을 기피하면서 이 격차가 벌어지는 경향이 있다.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3일 기준 3.32%로 나타났다. 회사채(3년물) 금리

가 3.926%였던 것과 비교하면 0.594%p 차이가 난다. 2월 27일 회사채(3.633%)와 국고채(3.040%)로 두 금리 간 차이는 0.593%p였다.

금융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신용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채권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CP, 신용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경우 채권시장과 단기 자금시장 전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동성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의미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강화되면서 신용채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재까지는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는 모습은 아니지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metro

>> 1면 '삼성 이익잉여금 400조'서 계속

HVAC 등 외연확장 탄력 업계, 대규모 투자 전망도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까지 10나노 5세대(1b) D램 공정 전환을 이어가는 동시에 경기 평택 공장을 중심으로 신규 라인 증설을 통해 10나노 6세대(1c) D램 생산 능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A 규모도 키워나가는 모습이다. 지난해 말 기준 삼성전자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은 총 308개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80개 증가한 수치다. 이는 삼성전자 역사상 최대 M&A였던 하만 인수 직후인 지난 2017년의 증가 폭을 웃도는 기록이다.

특히 회사는 AI데이터센터의 핵심 설비인 냉난방공조(HVAC) 시장에서 외연 확장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유럽 최대 공조기 업체인 독일 플렉트그룹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 바 있다. 한화 약 2조3800억원에 달하는 대형 M&A 절차를 5개월 만에 완료하며 그간 가전제품 분야에 집중돼 있던 냉난방 기술을 데이터센터 공조 영역까지 확장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익잉여금과 순현금이 크게 늘었다는 것은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에 나설 수 있는 재무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했다는 의미"라며 "AI 반도체 시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투자나 연구개발 확대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1면 '오가노이드 기반 장질환'서 계속

"K-재생의료 가능성 제시"

오가노이드사이언스는 이번 임상을 통해 장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의 임상적 가능성을 확인하고 난치성 장질환 치료를 위한 차세대 재생의료 기술의 가치를 검증할 계획이다.

오가노이드사이언스 유종만 대표는 "이번 IND 승인은 오가노이드 기반 재생치료제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임상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새로운 재생치료 접근법을 통해 기존 치료에 충분히 반응하지 않는 난치성 장질환 치료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K-재생의료의 글로벌 표준이 되게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국내 1상 IND 승인은 오가노이드사이언스의 글로벌 임상 전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이다. 회사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되는 국내 임상 시험을 기반으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을 확대하고 글로벌 라이선스 아웃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이미 ATMP 인증을 획득했으며 자회사 랩다바이로직스를 통해 독일 공공 펀드를 확보해 임상 자금도 마련했다. 또한 미국에서는 마운트사이나이 뉴욕과 협력해 임상 1상을 추진하고, FDA의 재생의료 치료제 신속 개발 프로그램과 RMAT 등 다양한 신속 심사 제도를 활용할 계획이다.



metro



metro

당정, 고유가 대응 총력... "이달안에 추경안 국회 제출"

추경규모 미정... 물류자금 등 지원 3년 6개월만에 국고채 바이백 추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중동 사태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리 경제에 과장이 커지는 서민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달 말까지 편성하기로 했다. 또 고유가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대비해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 가동률을 높이기로 했다.

민주당 중동사태 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간사 안도걸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정경제부·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 등과 함께 2차 회의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논의 내용을 전했다.

당정은 이날 중동 사태와 관련해 에너지 수급 안정 문제, 석유류 가격 등 물가 안정,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외환 금융시장 안정,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문제 등을 점검했다.

추경안은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안 의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TF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동사태 경제대응 TF 제2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은 "정유사 손실 보전과 서민·소상공인 에너지 바우처 지급, 수출 피해 기업 물류 자금 지원 등이 주요(편성 항목으로)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추경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다만 안 의원은 "금년도 초과 세수 예상분을 15조원~20조원 정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 규모가 그 정도 된다는 거지, 실제 추경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별도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부처 보고에 따르면 현재 원유 비축량은 208일분, LNG(액화천연가스) 9일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LNG의 경우 비축량이 적지만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물량을 다 확보했다"고 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한 위기 관리 단계를 이번 주 중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할 방침이다. 석탄발전량 80% 상한제를 이날부터 해제하고, 원전 이용률을 60% 후반대에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플라스틱 원료)는 국내 생산 물량의 해외 수출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나프타의 대체 수입선을 발굴·확보할 계획이다. 여수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중기부,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 덜다... 150억 규모 바우처 공급

20일부터 접수... '신속심사제' 도입

중소벤처기업부가 중동 상황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05억원 규모의 바우처를 긴급 편성하고 이달 20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16일 중기부에 따르면 흥해·호르무즈 해협 등 중동 주요 물류 거점의 운항 차질로 해상운임이 급등하고 전쟁위험 할

증료 등 부대비용이 증가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동 특화 항목 신설하고 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중동 지역에 수출 중이거나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1050만원(정부 보조율 70%)을 긴급 지원한다.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기존 지원 항목에

▲전쟁위험 할증료(WRS) ▲항만 폐쇄 등에 따른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Detention Fee) ▲대체 목적지 우회 운송비 등을 대폭 추가했다.

아울러 올해 1차 수출바우처에 선정된 기업도 중동 수출 실적이 확인 될 경우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중기부는 또 사흘 이내에 바우처를

발급하는 '신속심사제'를 도입한다. 분쟁에 따른 피해기업을 적기에 지원하기 위해 신청 서류와 절차를 간소화했다. 신청 기업은 수출 실적과 피해 증빙만으로 신청 후 3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확정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전용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상세한 문의는 수출바우처 민원 안내센터로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bada@



metro

/이세경 기자 seilee@

유가 10% 오르면, 제조업 생산비 0.71% 뛰어 부담 커진다

산업연구원, 美-이란 전쟁 영향 보고서
 중동 긴장에 유가·물류 불안 확대
 직접 수출 충격은 제한적 전망
 석유제품·화학업종 비용 상승폭 커
 봉쇄 땀 운송비·납기 차질 우려
 수입선 다변화·물류 대응 필요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로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한국의 대(對)중동 수출이 최근 확대되는 흐름이지만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 운송 차질이 발생할 경우 운송비 상승과 납기 지연 등으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16일 발표한 '미국-이란 전쟁의 리스크 확산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지역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에너지 공급망 불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해 중인 대형 컨테이너선과 선박의 모습. /뉴시스

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커지면서 국제유가 상승과 해상 물류 불안이 동시에 확대되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국제유가 상승 ▲해상 물류 차질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국제유가가 단기 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두바이 기준 국제유가는 전쟁 이전 배럴당

약 72달러에서 약 103달러 수준까지 상승하며 40% 이상 급등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수출 측면에서는 직접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됐다. 한국 전체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2~3%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다만 해상 물류 차질이 발생할 경우 간접 영향은 커질 수 있다. 보고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해상 운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운송비 상승, 납기 지연, 공급망 교란 등이 나타나면서 수출에 간접적인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동 국가들의 산업 다각화 정책과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자동차·기계·플랜트·소비재 등 한국의 대중동 수출이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물류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 수출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제조업 역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관표를 활용한 분석 결과 국제유가가 10% 상승할 경우 국내 제조업 생산비용은 평균 0.7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생산비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석유제품 산업의 생산비 증가율이 6.30%로 가장 높았고, 화학제품 1.59%, 고무·플라스틱 제품 0.46%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기타 운송장비 0.20%, 기타 제조제품 0.19%, 음식료품 0.15%, 자동차 0.14%, 일반기계 0.12%, 철강 0.08%, 반도체 0.05% 등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은 미국-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기업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에너지 공급망 안정화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 에너지 수입 구조를 고려해 수입선 다변화와 비축유 활용, 해상 운송 차질에 대비한 물류 대응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홍성욱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전쟁 장기화 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홍 실장은 "단기적으로 정부가 최고유가 가격제를 시행하면서 물가를 잡는 단기 안정화 정책에 들어갔다"며 "그런데 장기화됐을 때 경제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상황, 물가도 상승하며 경기가 둔화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상황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 고민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리기 어려운 여건인 만큼 정부가 시장 안정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호르무즈發 요소값 불안... 비료·먹거리 물가 긴장

중동산 농업용 요소 비중 40% 달해
 정부 "민간 재고 6개월치 확보" 진화
 가축전염병 확산도 물가 불안 요인

중동 전쟁의 여파가 국내 비료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비료의 핵심 원료가 요소인데, 지난해 국내로 들어온 농업용 요소의 5분의 2 가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친 것으로 집계됐다.

요소는 질소비료 제조에 사용된다. 비료는 벼, 채소, 과수 등 대부분의 농작물 재배에 사용된다. 상승한 요소 값은 비료 값 인상을 부르고, 농가는 늘어난 생산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농식품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산 농업용 요소 35만 톤(t) 중 38%가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국내에 들어왔다. 한국의 최대 요소 수입 지역은 중동으로 전체 수입의 약 40%를 차



지난 11일 인천 강화의 한 감자밭에 화학비료가 놓여 있다. /뉴시스

지한다.

국내 재고는 확보돼 있다. 하지만 국제 시장에서 요소의 가격 변동성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국제 비료 선물시장인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거래되는 요소 가격은 최근 전쟁 발생 이후 일주일 새 40% 넘게 뛰었다. 전쟁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시 원료

가격 상승이 비료 생산비를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비료 생산업체 등 민간이 약 6개월치 재고를 확보하고 있어 단기적인 수급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대책을 묻는 의원들 질문에 "비료 원료 가운데 약 3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 하는 구조이지만, 현재 재고는 8월까지 확보돼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제2의 비료 대란' 가능성을 거론하고 비료 원료의 비축 관련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정부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재고가 충분하지만, 국제 시장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의 경우 비료 원료 가격의 급등이 농업 생산비와 식료품 가격 상승을 불러온 바 있다. 당시 중국이 환경규제 등을 이유로 요소 수출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이른바 '요소 대란'이 발생했고 물류 부문 등이 타격을 받았다.

2022년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질소 비료 원료 가격도 급등했다. 이에 세계 비료 가격이 사상 최고 수준을 찍었고 국내에서도 비룻값이 큰 폭으로 올랐다.

한편,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에 더해 가축전염병의 확산도 물가불안 요인으로 꼽힌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등 이른바 3대 가축전염병의 발병이 동시 증가 추세에 있다. 이에 살처분이 크게 늘면서 계란·돼지고기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metro

고유가 현상 이어지면 1500원선 안착 가능성

>> 1면 '1500원 환율 뉴노멀... '서 계속

◆ 정부, 환율 개입 지속·영향은 제한적
 환율 상승을 경계한 정부와 외환당국은 구두개입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4일 중동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환율과 금리가 국내 경제 상황과 괴리돼 움직이는지 살펴보고 필요시 정부와 협조해 적기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한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유가·환율 등에 대한 범부처 대응안을 주문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원·달러 환율은 이란 전쟁의 장기화 우려가 촉발한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1500원 안착 여부를 시험하고 있다"라면서 "글로벌 경기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관론에 위험선호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고, 위험통화인 원화의 약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원은 "미국이 중동사태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면서 중동사태 장기화 우려가 유가를 급등시키고 달러화 강세폭을 키우고 있다"면서 "중동사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고유가 현상이 이어진다면 환율이 1500원선에 안착할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30년 만의 최고가격제 시행... 정유업계, 손실·재무 부담 가중

국내 기름값 상승세 일단 진정
 국제 석유제품 가격 여전히 고공행진
 손실보전 입증·분기별 정산에 부담

정부가 30년 만에 도입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서 급등하던 국내 기름값 상승세가 일단 진정되는 모습이다.

1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ℓ)당 1836.5원을 기록했다. 이는 중동 사태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5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도입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다만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유가 산정 기준이 되는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은 지난 13일 기준 보통휘발유가 배럴당 136.44달러로 미국의 이란 공습 이전(90.31달러)과 비교해 51.1% 상승했다. 같은 날 경유 가격도 배럴당 192.48달러로 67.2% 오른 상태다.

일반적으로 MOPS 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판매 가격도 함께 오르지만 최고가격제가 적용되면서 정유사들은 일정 가

격 이상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제 가격과 국내 공급 가격 간 격차가 커질수록 정유사의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정유사의 손실을 재정적으로 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손실 보전과 정유사의 입증 책임, 분기별 정산을 원칙으로 하는 사후 정산 방식이 적용된다. 정유사가 손실 규모를 산정해 공인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정산을 신청하면 회계·법률·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최고액 정산위원회'가 이를 심사해 최종 보전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다.

/원관희 기자 wkh@

다만 정유업계에서는 실제 정산 과정에서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SK에너지, GS칼텍스, 에스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주요 정유사는 손실액 산정 과정에서 회계법인 심사를 거치며 금액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정산위원회의 검증 과정에서도 추가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분기별 정산 방식으로 인해 보전 시점이 늦어질 경우 일정 기간 손실을 자체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세가 장기화될 경우 재무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화, 라이프 사업장에 AI·로봇 도입... 계열사 시너지 창출

그룹 인적분할·신설 지주사 앞뒤
신시장 개척·외부 수익창출 목표

아워홈, AI 카메라로 위생·안전 점검
백화점·호텔선 매장 혼잡도 등 분석
비노봇·조리 로봇, F&B 매장 활용

한화그룹이 테크(Tech)와 라이프(Life) 솔루션 간 협업을 통해 새로운 사업 모델 발굴에 나선다. 그룹의 인적분할과 신설 지주사 설립을 앞두고 계열사 간 기술·서비스 결합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는 식품·유통·서비스현장에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해 고객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신시장을 개척해 외부 수익 창출까지 이어가겠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단체급식과 식자재 유통 사업을 하는 아워홈 사업장에는 AI 카메라가 시



조리 공간 내 이상 상황 등을 감지해 알려주는 AI 카메라.



소믈리에의 모션을 학습해 브리딩 하고 있는 로봇믹스 협동로봇./한화그룹

범 도입된다. 조리실에 설치된 AI 카메라는 조리사의 복장과 위생 수칙 준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상 소리나 온도 변화를 감지해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식자재 공급 효율화를 위한 기술 도입도 추진된다. 바코드 인식과 영상 촬영

기능이 결합된 카메라가 식재료 입고 시 재고를 자동 등록하고, 인공지능이 재고 상황을 분석해 발주를 진행하는 지능형 자동 발주 시스템 개발이 진행된다. 또 AI 카메라로 급식 이용자의 메뉴 선호도를 분석해 식단을 개선하는 기능도 도입 예정이다.

유통·호텔 등 라이프스타일 사업장에도 기술 적용이 확대된다. 백화점과 호텔·리조트에는 AI 카메라를 활용한 매장 혼잡도 분석과 고객 패턴 분석 시스템이 도입돼 운영 효율과 고객 편의를 높인다. 이상 상황이 감지되면 직원에게 즉시 알림을 보내 대응할 수 있도록 하

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또 협동로봇을 활용한 고객 서비스도 확대한다. 소믈리에 동작을 학습한 '비노봇(VINOBOT)'과 조리 로봇 등이 F&B 매장에서 활용될 계획이다.

한화는 향후 인적분할이 마무리되면 별도의 시너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술과 서비스 결합을 통한 신사업 발굴을 지속할 방침이다. 초기에는 그룹 라이프 사업장에 기술을 적용하고, 이후 이를 사업 모델로 발전시켜 외부 시장으로 확장한다는 구상이다.

한화 관계자는 "부문 간 시너지는 새 지주사가 추진하는 핵심 전략 중 하나"라며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협업을 통해 일상 속 편의와 안전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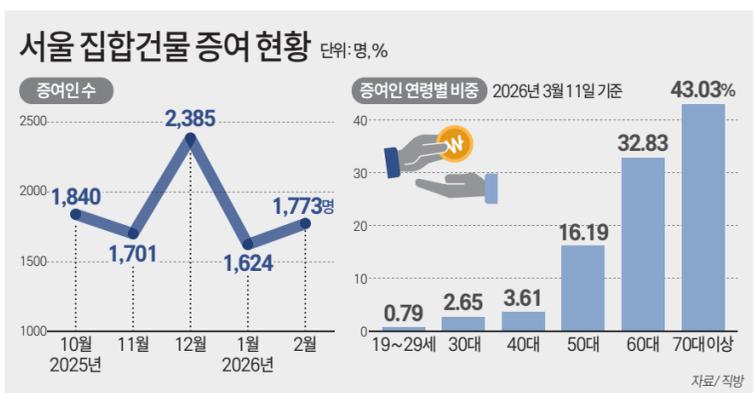
“서울 집 파느니 자식 준다”... 지난달 50·60대 증여 늘어

서울 증여인 1773명... 전월비 9.2% ↑
전국적으로 고령층 중심 증여구조
자녀세대 주택 마련에 부모자금 활용

지난달 서울에서 주택 증여가 늘어난 가운데 증여자의 연령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도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

16일 직방에 따르면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의 증여인은 지난 2월 1773명으로 전월 대비 9.2%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지난달 40대 3.61%, 50대 16.19%, 60대 32.83%, 70대 이상 43.03% 등이다. 단일 연령대 기준으로는 여전히 7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가



장 높지만 50대와 60대를 합한 비중은 49.02%로 70대 이상 비중을 웃돌았다.

특히 70대 이상 비중은 1월 49.26%에서 2월 43.03%로 낮아진 반면 50대 비중은 13.42%에서 16.19%로 확대됐다.

경기도 역시 50~60대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증여인의 비중은 연령별로 40대 6.16%, 50대 17.86%, 60대 29.52%, 70대 이상 41.17%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적으로는 여전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증여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전국 증여인의 연령 비중은 40대 6.00%, 50대 14.73%, 60대 24.17%, 70대 이상 49.29%로 나타났다. 전체 증여의 절반가량이 여전히 70대 이상에서 발생했으며, 50~60대 비중을 합쳐도 70대 이상 비중에는 미치지 못했다.

직방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간 증여 연령 구조 차이는 자녀의 주택 구입 시기와 맞물려 증여 시점을 앞당기는 움직임이 수도권에서 상대적으로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세대가 주택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어난 점도 배경으로 지목된다”고 분석했다.

관계자는 또 “대출 규제 강화로 주택

구입 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자금의 규모가 제한되면서 필요한 자기자본 부담이 커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며 “자녀의 주택 구입 과정에서 부모세대가 자산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증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흐름”이라고 전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70대 이상 중심의 증여 구조가 뚜렷했다. 전라북도의 70대 이상 비중은 78.13%로 가장 높았으며, 전라남도 55.91%, 경상남도 55.78%, 충청남도 53.57%, 충청북도 52.78%, 강원특별자치도 51.54% 등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다주택 보유 부담 확대에 대한 인식이나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한 규제 강화 가능성 등 최근 시장 환경 변화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유 자산을 미리 정리하거나 자산 이전 시점을 앞당겨 증여를 선택하는 사례도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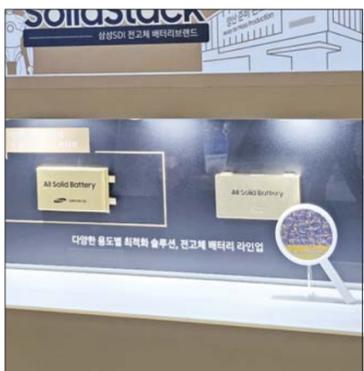
metro

삼성SDI·LG엔솔, 매출 줄어도 차세대 배터리 R&D 집중

삼성SDI·LG엔솔 1.4조·1.3조 투입
CATL 4.7조... 양사 2배 규모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가 작년에 매출둔화 속에서도 1조4000억원 안팎의 연구개발(R&D)비를 각자 쏟아부으며 전고체 등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그러나 글로벌 배터리업계 1위인 CATL이 지난해 5조원 가까운 자금을 R&D에 투자하는 등 중국업체의 미래기술 선점투자가 가속화하고 있어 양국 주요 기업간 배터리 전쟁은 AI의 본격 활용과 함께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2025년 연구개발(R&D)비는 1조4209억원으로 전년(1조2976억원)보다 9.5% 증가했다. 매출 대비 비중은 10.7%를 기록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R&D 비용은 1조3278억원으로 전년(1조882억원) 대비 약 22% 늘었다. 매출 대비 연구개발 비중은 5.6% 수준이다. 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규모를 합치면 2조7487



인터배터리 2026에 마련된 삼성SDI '피지컬 AI'용 전고체 배터리 샘플. /원관희 기자

억원에 달한다.

CATL은 2025년 연구개발에 국내 두 회사의 개발비보다 2배가까운 221억 위안(약 4조770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 10년간 누적 연구개발 투자액도 900억 위안(약 19조4400억원)을 넘어섰다. 이 같은 공격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는 39.2% 점유율로 9년 연속 1위를 유지했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배터리 분야에서도 30.4%로 5년 연속 1위를 기록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판매량도 661GWh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CATL은 나트륨이온 배터리 상용화와 함께 전고체 배터리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대응해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차세대 전지 기술 확보에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CATL이 생산 규모와 가격 경쟁력, 공급망 생태계를 기반으로 당분간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전고체전지 등 차세대 기술 상용화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경쟁 구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SDI는 고에너지밀도 각형 전지와 전고체 배터리를 중심으로 차세대 전지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46파이 원통형 전지와 ESS용 고출력 모듈 개발도 진행하고 있다. 전고체 배터리 파일

럿 라인을 구축해 시제품 개발과 고객사 검증을 진행 중이며 2027년 양산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전고체전지와 바이폴라전지, 소듐전지 등 차세대 전지 기술을 동시에 개발하고 있다. 리튬망간 리치(LMR) 배터리와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등 다양한 차세대 기술 개발도 병행하고 있으며 배터리 성능과 수명 예측 모델링, CTP(Cell-to-Pack) 기술 등 시스템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두 기업 모두 연구개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인공지능(AI) 활용도 확대하고 있다. 소재 탐색부터 셀 설계와 성능 평가까지 연구개발 전 과정에 데이터 기반 분석과 자동화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AI 기반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하면 기술 개발 속도를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다”며 “기술 축적과 연구개발 가속을 동시에 추진해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



metro

>> 1면 '삼성SDI, 1.5조 ESS...'서 계속

각형 배터리 기술 기반 글로벌 경쟁력 강화 기대

이번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미국 ESS 시장에서 공급 실적을 지속적으로 쌓는 동시에 향후 실적 개선의 기반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SDI는 올해 초에도 미국에서 대규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다수의 글로벌 고객사와 추가 공급 계약을 협의 중이다. 이 가운데 일부는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업계에서는 삼성SDI가 각형(프리즘 스택) 배터리 기술을 기반으로 ESS 공급 계약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향후 국내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과 글로벌 수주 경쟁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SDI는 북미 지역에서 비중국계 가운데 유일하게 ESS용 각형 배터리를 생산하는 업체로 파우치형 대비 내구성이 높은 각형 구조와 화재 안전성 기술, 신뢰성을 바탕으로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며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원관희 기자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올거예요, 더 원더풀한 인생이

NH **올**원더풀

지금까지 잘 달려온 당신, 앞으로의 시간이 더 원더풀해질 수 있기를!
금융 자산부터 건강 케어까지, 시니어에게 꼭 필요한 가치들을 한 곳에 담아
당신의 다음 인생을 더 믿음직스러운 혜택들,
더 빛나는 순간들로 채워드립니다



NH농협금융

NH농협은행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투자증권 NH-Amundi자산운용 NH농협캐피탈 NH저축은행 NH농협리츠운용 NH벤처투자 NH농협카드

與 “주변국 대응 살펴야” 野 “장병 안전문제”… 모두 신중론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파견 요구

전쟁 상황·다국적군 참여 가능성 정치권, 사실상 파병 요구로 판단 해외 파병, 헌법상 국회 동의 원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5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여야 모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선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우리 정치권에선 사실상 ‘파병’ 요구로 보고 있는 셈이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주변국 대응 등을 보면서 보수적으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중동의 복잡한 정치 상황, 특히 이란과의 관계, 한미 동맹, 우리 상선의 안전, 그러면서도 우리 파병부대 군함의 안전 등을 다 검토해야 해서, 적극적으로 파병에 동의하는 것은 반대”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선불리 동참했다가는 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미국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 규탄 및 파병 반대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단히 위험하다”면서 “물밑에서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이어 “시간을 끌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소말리아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가 활용될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은 “청해부대의 임무가 소말리아에 있는 아덴만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임무를 확대할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게 맞다”면서 “우리 교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어디나 갈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으나 이번에는 전쟁상황이고 또 다국적군에 편

성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맞지 않나 생각하고,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선 군함 파견 자체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기현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 요청 반대’ 1인시위에 돌입했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지목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병을 요구했다”며 “우리 군을 파병하는 것은 우

리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적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행동에 참여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이란의 직접적인 타격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는 우리 기업과 재외 동포, 영사 시설의 안전을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송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투 개입 가능성 큰 지역에 우리 군을 파병하는 중대한 결정에 해당한다”며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필수적인 사안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우리 장병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거나 헌법상 절차를 무시하고 결정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동의를 받아 청해부대 파견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미국의 공식 요청이 오면 1단계로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고 2단계로 추가적인 한미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윤 의원은 “그 과정은 국회 동의 등 투명한 절차를 거쳐, 우리 국민과 우리 선박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 결정이어야 한다”며 “특히 이란 못지 않은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비전투 목적으로, ‘자국 선박 보호’라는 명분으로 파견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해외 파병 시 정부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 2020년 1월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한 바 있는데, 이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당시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파병 동의안에 포함된 ‘유사시 작전 범위 확대’ 조항을 근거로 작전 범위를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데 추가 동의를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므로, 국회 동의를 필요하다는 게 군 관계자 및 정치권의 관측이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과도한 선명성 경쟁, 검찰 개혁 망칠수도”

이 대통령, 당내 강경파 겨냥 발언 “개혁의 본질은 실질적 성과”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검찰개혁을 두고 여당 내에서 갈등이 이는데 대해 “개혁은 실질적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본질과 괴리된 과도한 선명성 경쟁과 긴요하지 않은 조치 때문에 해체되어야 할 기득 세력이 반격의 명분과 재결집 기회를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당 일각에서 보완수사권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에 나선 모양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엑스(X·옛 트위터)에 ‘검찰개혁에 대한 일각의 우려는 기우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국민권정부는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 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

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수사 배제는 국정과제로 이미 확정된 것이고 돌이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소청장’ 명칭 문제나 검사 전원 면직 후 재임용 등을 언급하며 “수사 기소 분리(검사의 수사 배제)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질에서 벗어난 논쟁 중이라는 의미다. 그러면서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논의되는 것은 검찰개혁 ‘정부안’에 아니라 당정이 협의하고 여당당론으로 채택됐다며 “이 수정안은 정부안 이 아니라 당정협의안”이라고 정정했다. 이어 “이 당정협의안 역시 만고불변의 확정안이 아니라 필요하면 입법과정에서 또 논의하고 수정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재수정은 수사

기소 분리, 검찰의 수사배제라는 대원칙을 관철하는데 도움되는 것이어야지, 만의 하나라도 누군가의 선명성을 드러내거나 검찰개혁의 본질과 무관한 다른 목적에 의한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강경파를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위헌논란 소지를 남겨 반격할 기회와 명분을 허용할만큼 검찰총장 명칭을 공소청장으로 굳이 바꾸어야 할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임용 기준도 불명확한 마당에 사조직화 주장 등으로 반격할 여지를 만들어 주면서까지 검사전원해임 선별재임용이라는 부담을 떠안을 이유도 분명치 않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보완수사 허용 여부는 추후 검사의 수사지휘를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시에 심층 논의하기로 돼 있다면서 “이 역시 남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충분히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예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경남 창원시 반송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李, 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가능성 언급

저소득 노인에게 증액분 지급 방식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노인빈곤의 해결책 중 하나로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했다. 대통령이 먼저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아, 의견 수렴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자살까지 유도하는 노인빈곤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지급되는 것은 그냥 두고, 향후 증액만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하는 것도 방법일 듯한데 여러분의 견은 어떠신가”라고 물었다.

현재까지의 체계를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후 저소득층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할 수 있도록 증액을 하자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전체 자살률, 노인 자살률 세계 최고 급인 우리나라에서 노인자살의 제일 큰 원인이 빈곤”이라며 “월 수입 수백만원 되는 노인이나 수입 ‘제로’인 노인의 기초연금액이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 일부는 빈곤 노인에게 조금 후하게 지급해도 되겠지요”라고 했다. 기초연금은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온 ‘기초노령연금’ 제도의 후신으로,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법’에 근거해 시행됐다. 가구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65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된다. 이 대통령은 해당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현행 기초연금 제도상 연 수입 5600만원이 넘는 노인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물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이유로 연금액의 20%를 감액했던 제도를 취약계층부터 우선 개선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첨부하며 “부부가 해로(偕老)하는 것이 불이익받을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기초연금 감액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며 “감액지급은 재정 부족 때문이니, 가급적 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초연금은 별개 기금이 조성돼 있지 않고, 국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현찰을 지급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국힘 공관위,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

김지사 “민주주의 원칙 파괴” 반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충북 지역 경선에서 현역인 김영환 충북지사를 컷오프(공천 배제)하기로 했다. 후보는 추가 모집을 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공천을 둘러싼 내홍이 커질 전망이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지사 후보 공천과 관련해 많은

논의 끝에 현 충북도지사를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 신청자 외에 추가 공천 접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김 지사의 업적을 부정하거나 평가절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한 사람에 대한 평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변화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할 것은 안정에 머무는 정치가 아니라 스스로를 바꾸고 흐르는 혁신의 정치”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 같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컷오프 결정에 대해 김영환 충북지사는 불복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관위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관위는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절차를 파괴했다”며 “충북도민의 의사를 헌신짝처럼 가져다 버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고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정해 놓고 면접을 진행하더니 기가 막힌다”고도 비난했다.

김 지사는 이번 컷오프 과정 등을 면밀히 살핀 뒤 재심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민 인턴기자 kbm@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금융, 함께 가는 성장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모두의 희망이 하나로 모여 따뜻한 내일로 나아갑니다.
하나금융그룹은 진심이 담긴 포용 금융으로 손님의 성장을 이어갑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보증부대출

금융취약계층
자립 지원

지역
골목상권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

하나금융그룹은 국가 미래 성장과 민생 안정 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총 100조원을 투입하여 생산적 금융과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습니다.
• 금융이 필요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 금융 지원 • 서민·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지원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핑크 |

전 연령 '범용' vs 타깃 정교화 '특화' 카드사, 상품 라인업 재정비 나서

신한카드 올웨이즈 팬 등 2종 단종 전 고객층 위한 '심플 플랜' 출시 KB국민 3040 겨냥한 '유 프라이م' 주유·배달·통신, 보험 앱 10% 할인 비씨카드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화 에어 마스터·에어 맥스 2종 선보

주요 카드사가 최근 카드 상품 라인업 재정비에 나섰다. 특화 카드와 혜택형 카드 등 카드사마다 차별화된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달 '올웨이즈 팬', '건담카드' 카드를 단종했다. 해당 카드들은 2030 청년 맞춤형 카드다. 올웨이즈 팬은 온라인 쇼핑에, 건담카드는 키덜트(어른+아이)를 위한 건담 장난감 오프라인 구매에 특화된 카드다.

특히, 지난 2016년 출시된 올웨이즈 팬 신용카드는 10년간 판매됐던 역사 깊은 카드다. 대표적으로 신한솔(SOL)페이 온라인 거래 시 5% 할인 혜택을 제공했다. 이 외에도 커피·제과점 업종에서 30% 할인 혜택을, 편의점·생활잡화 업종에서 각각 10%의 할인 혜택을 지급해 왔다.

신한카드는 청년층 특화 카드를 정

리하는 대신, 범용 혜택형 카드로 방향을 전환했다. 연령별 타깃을 세분화하는 대신 전 고객층을 겨냥한 카드 상품을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일례로 신한카드는 최근 신한카드 '심플 플랜'과 '심플 플랜 플러스' 카드 2종을 출시했다. 단순한 혜택 구조가 특징이다. 심플 플랜은 실적 조건 및 한도 없이 국내 이용 금액 1%, 해외 이용 금액 2% 할인 혜택을 적용해 준다. 심플 플랜 플러스 역시 조건 없이 국내 이용 금액 1.5%, 해외 이용 금액 2%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KB국민카드는 특화 카드를 확대하며 상반된 전략을 취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올 초 3040 세대를 겨냥한 'KB 유(YOU) 프라이م(PRIME) 카드'를 출시했다. 모든 혜택이 3040세대 일상 소비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주유·배달·통신 보험 애플리케이션(앱) 이용 시 10%의 청구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편의점·취미 자기관리 영역에서 5% 청구할인 혜택도 마련됐다.

이 외에도 KB국민카드는 교육비 특화카드인 'KB 니드(NEED) 에듀(Edu) 카드', 러너들을 위한 특화 카드 'KB 마라톤카드', 야구팬들을 위한 '두산 베어스KB카드' 등을 연달아 출시하며

특화 카드 라인업 강화에 나서고 있다.

비씨카드도 비슷한 흐름이다. 비씨카드는 지난해 말 대한항공 마일리지 특화카드인 '에어(AIR)' 시리즈 상품을 신규 출시했다. 에어 마스터, 에어 맥스 총 2종으로 구성됐다. 두 상품 모두 카드 이용 금액 1500원 당 대한항공 1마일리지 기본적립, 100만원당 200마일리지 보너스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범용 혜택 중심의 오래된 카드는 축소하는 모습이다. 비씨카드는 오는 4월부터 '고트(GOAT) 비씨바로카드'를 단종한다. 비씨 고트카드는 실적 조건 없는 '페이북머니' 적립으로 대표적인 헤지카드로 불려 왔다.

매월 100만원 미만 이용 고객 대상 국내 가맹점 최대 1.5%, 해외 가맹점 최대 3% 페이백 머니를 적립해 준다. 이 외에도 연간 국내·외 카드 사용액 3000만원 이상 시, 적립된 페이북머니의 10% 추가 적립 혜택도 지급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노후화된 혜택 중심의 카드 상품들을 하나씩 단종하고 혜택을 강화한 상품들을 리뉴얼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리뉴얼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metroseoul.co.kr



metro



푸르지오 센트로 원의 석경 투시도.

/대우건설

대우건설, 고잔연립5구역 재건축 수주

지상 35층 15개동에 4864억 규모 단지명 '푸르지오 센트로 원' 제안

대우건설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원에 위치한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사업은 지하 3층~지상 35층 총 15개동, 148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금액은 약 4864억원 규모이다.

대우건설은 고잔연립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푸르지오 센트로 원(PRUGIO Centro One)'이라는 단지명을 제안했다. 푸르지오 센트로 원은 고잔연립5구역이 안산 주거 가치의 중심이자 새로운 주거 트렌드를 선도하는 '넘버원 주거 명작'이 될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단지 특화를 위해 대우건설은 푸르지오 센트로 원에 도시

의 풍경을 은은하게 투영하면서 화려함과 내구성을 동시에 갖춘 커튼월복공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스마트 사이런트 바닥구조' 특화 설계를 적용했다. 스마트 사이런트 바닥구조는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1등급 성능을 확보한 구조로 바닥충격음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구조적 안정성까지 확보한 대우건설만의 기술이다.

특화 설계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은 조합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사업 조건도 제시했다. 조합 필수사업비(2000억원)를 최저금리로 조달하고,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계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대우건설이 100% 부담해 조합의 금융 부담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6월 vs 9월... 美, 기준금리 인하시계 쟁점

美 연준, 이달 '동결' 기정 사실화 시장관심 동결여부→인하시계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동결 여부'에서 '인하 시계'로 옮겨가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은 사실상 기정 사실에 가깝지만, 중동발 유가 충격과 달러 강세 속에 연준이 여전히 6월 첫 인하 경로를 유지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연준의 3월 회의는 오는 17~18일 열리며 점도표가 포함된 경제전망요약(SEP)도 함께 공개된다. 시장은 금리 결정 자체보다 연준이 유가발 인플레이션 위험을 어떻게 반영할지, 제롬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최근 에너지 충격을 일시 변수로 볼지 아니면 정책 경로를 늦추는 요인으로 볼지에 더 주목하고 있다.

배경에는 예상에 부합한 미국 2월 물가와 그 이후 더 커진 에너지 변수의 시간차가 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월 대비 0.3%,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근원 CPI는 전월 대비 0.2%, 전년 대비 2.5%를 기록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물가가 다시 급등한 것은 아니지만, 이 지표를 최근의 전쟁발 유가 급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해석이 시장에서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최근 시장은 '무난한 2월 CPI'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지난 1월 2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하고 있다. /뉴시스

보다 '불안한 3월 물가'를 더 크게 보고 있다. 로이터는 "최근 유가 급등이 각국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며 "지난 16일 아시아 장에서 브렌트유가 배럴당 104.01달러까지 오르는 등 고유가와 큰 변동성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같은 날 달러도 10개월 고점 부근에서 강세를 유지해, 연준의 조기 완화 기대를 더 제약하는 환경이 형성됐다.

월가의 금리 전망도 빠르게 갈리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중동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이유로 첫 금리 인하 전망을 6월에서 9월로 늦추고 올해 9월과 12월 두 차례 인하를 제시했다. 바클레이즈도 첫 인하 시점을 6월에서 9월로 미루고, 올해 인하 횟수를 한 차례로 낮춰 잡았다. 두 기관 모두 최근의 물가와 에너지 변수 속에서 연준이 더 오랜 시간 확인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시장이 완전히 한 방향으로 정

리된 것은 아니다. 로이터가 지난 3월 6~12일 실시한 설문에서는 이코노미스트 96명 전원이 3월 동결을 예상했다. 이 가운데 63명은 여전히 다음 분기, 사실상 6월 첫 인하 가능성을 유지했다. 반면 같은 시기 금리선물시장과 일부 투자은행 전망은 첫 인하 시점을 9월 쪽으로 더 늦춰 반영하고 있다. 결국 연준을 둘러싼 핵심은 '동결이냐 인하냐'가 아니라 '6월이냐 9월이냐'의 문제로 압축되고 있는 셈이다.

아울러 이번 FOMC는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역시 눈여겨 봐야 한다. 연준이 올해 인하 횟수를 더 보수적으로 그리거나 파월 의장이 최근 유가 상승을 단순한 일시 변수로 넘기지 않을 경우 시장은 이를 '6월 인하 후퇴'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번 주는 연준을 포함해 여러 주요국 중앙은행 회의가 한꺼번에 몰려 있어, 시장은 정책 결정 그 자체보다 중앙은행들이 고유가와 지정화 충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는지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위기다.

김유미 키움증권 수석연구위원은 "기준금리 동결은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인 만큼, 최근 국제유가 상승에 대한 연준 의장의 평가와 인플레이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최근 높아진 시장의 불안심리를 고려할 때, 연준은 시장에 충격을 줄만한 발언은 자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

하나금융, 5000억 '모두성장인프라펀드'

신재생에너지·AI·디지털 인프라 선점

하나금융그룹이 약 5000억원 규모의 '하나모두성장인프라펀드'를 결성한다.

이번 펀드는 하나금융의 주요 관계사 자금으로 전액 조성되며, 미래 핵심 먹거리인 신재생에너지 및 AI·디지털 인프라 시장을 선점하고, 초기 개발단계의 산업에 선제적인 투자로 생산적 금융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은행은 4000억원, 하나증권 500억원, 기타 그룹 계열사가 500억원(하나생명 200억원, 하나캐피탈 170억원, 하나손보 100억원, 하나대체투자 30억원)을 각각 공동 출자한다.

이번 펀드의 주요 투자 대상은 국가적 과제인 ①신재생 에너지와 ②AI·디

지탈 인프라의 두 축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사업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환경시설 등 인프라 사업 ▲AI 데이터센터 및 AI 컴퓨팅센터 등 디지털 인프라 사업 등이다.

우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주요 투자 대상인 '완도금일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로, 발전 단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호남권 첨단산업 전력 인프라로 활용될 예정이다.

AI·디지털 인프라 분야에서는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인 '부천 삼정동 AI허브센터'와 '인천 구월동 AI허브센터'에 투자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금융, 청년 소상공인 영입기반 마련

'착한푸드트럭 시즌2' 청년 특별모집

KB금융그룹은 청년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입 기반 마련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KB착한푸드트럭 시즌2' 청년 특별모집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KB착한푸드트럭은 푸드트럭 운영자들의 노후 설비를 개선하고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성장을 돕는 KB금융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특히 지역 축제와 골목상권, 생활상권 곳곳에서

활동하는 푸드트럭 운영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지방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힘을 더하고 있다.

이번 특별모집은 지역 현장에서 생업을 이어가는 청년 사장님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모집대상은 만 34세 미만의 청년 푸드트럭 운영자이며, 총 30명을 추가 모집한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노후 차량·설비 개선,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의 1대1 맞춤형 마케팅 컨설팅 등이 제공된다. /안상미 기자

LGD, 매출감소·고객 다변화 지연... '속 빈 흑자전환' 지적

매출 감소세에도 흑자전환 기록 외형성장 보다 비용절감 영향 커 업계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해야"



LG디스플레이 파주 사업장 전경.

LG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가 4년 만에 영업흑자를 기록했지만 매출 감소와 고객 다변화 지연이 동시에 나타나면서 '속 빈 흑자 전환'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선임한 정철동 사장 체제에서 첫 연간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형 성장 없이 비용 절감 영향으로 흑자 전환이 이뤄진 만큼 이를 구조적 체질 개선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매출 25조8101억원, 영업이익 517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5606억원 영업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지만 매출은 전년 26조6153억원보다 감소했다.

문제는 이번 흑자 전환이 디스플레이 시장 수요 확대에 따른 외형 성장이라기보다 비용 절감과 사업 구조 조정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다.

실제로 회사는 최근 LCD 사업 축소와 인력 구조조정, 비용 효율화 등을 추진해왔다.

이 같은 구조에서 고객 다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사업 안정성 측면의 리스크로 지적된다. 주요 고객사의 제품 판매나 시장 점유율 변화가 곧바로 부품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LG디스플레이의 실적은 주요 고객사인 애플 공급 물량에 영향을 받는 구조로 알

려졌다. 여기에 LG디스플레이의 고객 다변화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도 지적된다. 최근 중국 TCL에 OLED 패널을 공급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LG디스플레이는 아직 사업 구조 변화를 논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TCL 공급은 이제 시작 단계로 당장 매출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OLED 중심 전략 역시 새로운 방향이라기보다 기존 전략을 강화하는 성격이 크다는 평가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OLED 중심 전략은 이전부터 이어온 방향이지만 최근 들어 보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경쟁사와의 전략 차이도 드러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OLED뿐 아니라 차량용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제품군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차량용 OLED 시장에 지난해 약 71.4% 수준의 점유율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레도스(OLEDoS) 등 XR 기기용 디스플레이 개발을 추진하며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사업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있다.

연구개발 투자 규모에서도 차이가 보인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디스플레이 사업부문의 연구개발비는 2025년 약 3조원대 수준이다. 반면 LG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비는 약 2조원대 규모에 그친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2023년 LG이노텍 대표를 지낸 정철동 사장을 LG디스플레이 최고경영자(CEO)로 선임하며 경영 정상화를 맡겼다. 정 사장은 취임 이후 LCD 사업 축소와 OLED 중심 사업 재편을 추진해왔다.

다만 매출 감소와 고객 집중 구조가 동시에 나타난 만큼 이번 실적을 두고 구조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부품 산업에서 특정 고객 의존도가 높으면 해당 고객사의 판매 부진이나 시장 점유율 변화가 곧바로 실적 변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고객 다변화는 부품사들에 중요한 경영 과제로 꼽힌다"고 말했다. 이어 "적자에서 벗어난 것과 장기적인 성장 기반을 확보한 것은 다른 문제"라며 "고객 다변화와 기술 투자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실적 개선이 일시적인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국내 주요기업, 채용규모 대폭 확대

AI 분야 등 미래 시장 경쟁력 확보 현대차그룹 1만명 이상 채용 검토 삼성 전자·물산 등 18개 관계사 공채 SK하이닉스 기술·사무직 신입 모집

삼성과 SK, 현대차그룹 등 국내 주요 그룹이 인공지능(AI) 등 미래 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해 2026년 상반기 인재 확보에 속도를 높인다. 반도체와 자동차 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 강화와 함께 차세대 먹거리 확보를 위한 미래 신사업으로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일부터 4월3일까지 2주간 공식 채용 홈페이지에서 전 부문이 참가하는 대규모 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신입·경력 인재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디자인 ▲생산·제조 ▲사업·기획 ▲경영지원 ▲IT 등 전 부문에 걸쳐 이뤄진다. 채용 공고는 171개에 달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 신입 특별 채용을 동시에 운영해 균형 잡힌 채용 기조를

이어간다. 현대차는 올해 채용 규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해 대비 채용 규모는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두고, 대규모 채용을 통해 인재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현대차그룹 차원에서 올해 채용을 1만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채용 규모가 7000명대였다면, 올해는 40% 이상 확대해 다섯자리수 채용에 나선다는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SK도 인재 확보를 위한 채용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부터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8개 관계사가 참여하는 상반기 공채를 시작해 1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1957년 국내 최초로 공채를 도입한 삼성은 4대 그룹 중 유일하게 이 제도를 70년째 유지 중이다.

채용은 3월 직무적합성 평가를 시작

으로 4월 삼성직무적성검사(GSAT), 5월 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소프트웨어(SW) 직군은 실기 테스트를, 디자인 직군은 포트폴리오 심사를 거쳐 우수 인재를 선발할 방침이다. 이번 채용은 평택 5공장 기초 공사와 용인 국가산단 조성 등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에 발맞춰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의 인력 수혈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용 회장이 앞서 반도체와 AI, 바이오 등 미래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국내에서 6만명을 채용할 계획을 밝혔다.

SK하이닉스도 10일부터 기술·사무직 신입 모집을 시작했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패키징 개발 등 차세대 반도체 분야의 전문 인력을 세 자리수 규모로 확보한다. 특히 시기와 경로에 제한을 두지 않는 새로운 채용 전략인 '탈린트 하이웨이'를 통해 신입부터 해외 인재까지 아우르는 유연한 인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금호타이어, 美 'SOLUS TA11' 리콜 진행

'트레드 분리 현상' 논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제품의 안전에 치명적인 '트레드(타이어 바닥면) 분리' 현상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는 운전자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타이어 트레드 분리 현상은 타이어 설계 등의 문제로 타이어의 마찰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타이어 바닥면이 통째로 분리되는 것을 말한다. 운전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소비자들의 불안은 클 수밖에 없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의 SOLUS TA11 타이어에서 트레드 분리 문제가 발견됐다. 이 제품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이 제정한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 139호를 충족하지 못했으며 가혹한 주행 조건에서 트레드 분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는 타이어 파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문제의 타이어는 2021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31일까지 광주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 기업 더블스타에 인수되면서 투자 위

축 등의 문제로 제품 품질 저하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2018년 더블스타로 인수된 이후 연구개발비를 축소했다. 매출 규모가 작은 넥센타이어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양사의 매출을 보면 금호타이어는 2018년 2조5587억원, 2019년 2조3692억원, 2020년 2조1707억원을, 넥센타이어는 2018년 1조9840억원, 2019년 2조223억원, 2020년 1조6981억원을 기록했다.

타이어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의 타이어 리콜의 경우 대부분 타이어 옆면에 DOT 마크와 고유 식별번호 등의 표시 문제로 진행된다"며 "트레드 분리는 성향이 다르다. 과거 이같은 문제로 운전자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치명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트레드는 차량의 밀림과 제동 등을 담당하는 중요한 부분인데 연결 부위가 분리되는건 타이어 기능을 상실한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해당 문제는 미국에서 진행된 것으로 현지서 리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삼성메디슨, 차세대 초음파 솔루션 선보인다

19일부터 'KIMES 2026' 참가

삼성전자 의료기기사업부와 삼성메디슨(이하 삼성)이 의료진의 진단 경험을 혁신할 차세대 초음파 솔루션을 대거 공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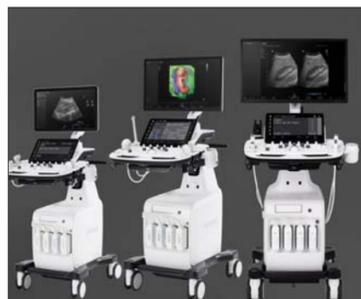
삼성은 오는 19일부터 나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KIMES 2026에 참가한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의 'V' 시리즈를 새롭게 정의하는 초음파 브랜드 '원 플랫폼'은 삼성의 고성능 반도체·컴퓨팅 기술기반의 새로운 아키텍처를 적용해 AI 기능의 확장성을 크게 높였다.

원 플랫폼이 제시하는 세 가지 고객 가치는 ▲프리미엄 장비의 DNA를 계승한 일관된 워크플로우 ▲복잡한 기능을 단순화한 원클릭 솔루션 ▲AI 기술 기반 일관된 결과다.

V 시리즈에 프리미엄 초음파 진단기기 R20·Z20과 동일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별도의 학습 과정 없이도 여러 장비를 하나의 장비처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신제품 'V4'도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 V4는 초음파 장비의 주요 소음과 고장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냉각 팬을



삼성 초음파 진단기기 V 시리즈를 새롭게 정의하는 초음파 플랫폼 브랜드, 원플랫폼.

/삼성메디슨

제거한 세계 최초의 팬리스 초음파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팬 소음을 제거한 제로 dB 진로 환경을 구현하고 장기 사용 안정성을 높였다. 전력 소비도 기존 대비 약 35% 절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삼성전자, '가전제품 원격진단' 글로벌 인증

넴코 'AI 트러스트 마크' 취득

삼성전자는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가 글로벌 인증 기관인 넴코(Nemko)가 주관하는 'AI 트러스트 마크(AI Trust Mark)'를 국내 최초로 취득했다고 16일 밝혔다.

넴코는 9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노르웨이 기반의 글로벌 시험 인증 기관이다. 전세계 150여 개국의 규격 인증을 관리하고 있다. 2024년부터 AI 시스템

의 기술적 투명성과 윤리적 안정성을 보증하는 AI 트러스트 마크를 운영 중이다.

삼성전자 가전제품 원격진단 서비스는 제품의 상태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전문 상담사가 진단과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인정 받았다.

/구남영 기자

이병권 “대형마트 새벽배송, 유통산업 상생협력으로 풀어야”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기자간담회 “유통산업 상생협력 지속가능성 확보” 올해 정책방향, 성장·회복·재도전 ‘소확행 TF’ 가동, 현장소통·정책발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슈는 유통산업분야에서 상생협력 문제로 풀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병권 차관은 16일 오후 서울 마포에 있는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2026년 소상공인 정책 설명회’에서 “지금은 새벽배송을 대형마트가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유통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과거에 만든 제도의 틀이 많이 퇴색했다. 정부가 (대형마트)규제를 계속 존속시키는게 의미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상인들의 상생, 온라인 유통강자와 오프라인의 상생 협력 등 이제는 대결구도를 통한 영역다툼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협력으로 나가야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차관은 “유통 유통산업에서 상생협력을 해야 어떤 기업이든 지속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올해 소상공인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중기부

가능성을 확보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이슈는 법개정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상생협력 테두리 안에서 방법이 생길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중기부 정책기획관, 서울지방중기청장 등을 역임한 이 차관은 이재명 정부에서 소상공인 전담차관을 만들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중기부의 첫 2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 차관은 “기존의 소상공인 정책은 보호 중심이었지만 대내외 환경 변화를 고려해 기존 정책을 강화하면서도 성장, 사회안전망 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올해 소상공인 정책방향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과 재도전 지원 ▲소상공인 정책 지원체계 개선을 중심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대기업·플랫폼사들과의 협업 분야를 기존에 종합(식품 제외), 식품, 패션·뷰티, 숙박·음식점 분야에서 ‘홈·리빙’ 분야까지 늘리고, 수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패션’과 ‘뷰티’를 분리해 ▲식품 ▲홈·리빙 ▲패션 ▲뷰티 4개 분야로 재편한다. 이를 통해 기초컨설팅(3500개사)→브랜드정립(700개사)→브랜드 홍보확산(30개사) 등 소상공인의 역량, 성장 가능성에 따라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한다.

이 차관은 “일부 플랫폼들이 해외에 나가면서 소상공인 제품과 같이 진출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해외시장으로 가면서 소상공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야들로 재편해 소상공인들의 도약과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중기부는 위기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60% 이상을 비수도권, 인구소멸 지역에 배정한다. 금리도 0.2%포인트(p) 낮춰 부담을 더욱 줄여줄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 78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새출발지원센터’를 활용해 재기소상공인 지원에 더욱 집중한다.

영세 소상공인을 선별·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매출액 중심에서 소득·자산 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바뀌 정책 효과를 높인다. 소상공인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올해 4만2000명까지 늘린다.

이 차관은 “소상공인 정책은 우리 경제의 하부구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받는 변수도 다양하다. 대상자도 많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눈높이에 맞게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metro

대중기협력재단

고탄소업종 ESG 지원

20곳에 기업당 최대 1500만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고탄소배출업종 중소·중견기업 20여 곳에 기업당 최대 1500만원을 지원해 탈탄소를 돕는다.

대중기협력재단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의 탈탄소 전환과 ESG 경영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대기업과 협력이 함께 참여하는 공급망 기반 탈탄소 협력 유형을 확산하고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ESG 대응 역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고탄소배출업종 공급망 ESG 지원사업은 정부지원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을 연계해 추진하는 종합 지원 과제(패키지형 프로그램)로, 고탄소배출업종 기업과 협력이 공동으로 ESG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철강, 석유화학, 정유, 시멘트, 반도체·디스플레이, 자동차, 비철금속, 제지·섬유, 전기·전자, 조선, 기계, 바이오 등 12대 온실가스 다배출업종에 해당하는 국내 대·중견기업 또는 공공기관이며 상생협력기금은 정부지원금 대비 최소 30% 이상 출연해야 한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美 보스턴에 AI 로봇 해외 실증거점 구축

대구 AI로봇 특구 기업 지원 위해 마련 원본 영상 기반 AI 학습 성능 검증 추진 현지 오피스로 실증·시장 안착 지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국 보스턴에 인공지능(AI) 로봇 첨단 기술 실증 거점을 만들고 우리 기업들을 지원한다.

16일 중진공에 따르면 대구기계부품연구원(DMI),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GRC)와 함께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의 로봇 실증 거점인 ‘너브 센터(NERVE CENTER)’에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 AI로봇 분야 첨단 기술 실증을 위한 현지 거점을 구축했다.

‘글로벌혁신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부터 현재까지 총 7개 특구를 선정해 지원중이다. 중진공은 전문기관으로서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글로벌특구는 국내 신기술·신



지난 13일(현지시간) 미국 보스턴 내 글로벌특구 실증 거점에서 현지점점 후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산업의 실증 특례를 지원하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해 국내 유망기업이 해외 인종과 실증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 분야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진공은 지난해 5월 지정된 대구 AI

로봇 분야 글로벌특구기업의 글로벌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주관기관인 대구기계부품연구원과 미국 보스턴 내 대구 특구의 해외 실증 거점(너브센터)을 마련했다. 특히, 국내 법적 제약으로 활용이 어려웠던 ‘AI 자율주행 로봇의 원

본 영상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술적 실증이 해외 거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로봇이 사람의 영상·행동·위치 등 데이터를 수집해 AI 학습에 활용하는데 엄격한 제한이 있다. 그러나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군중 환경을 인지하고 보행자의 돌발 행동을 예측하는 등 고난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람을 기반으로 한 ‘원본 데이터’ 학습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원본 데이터와 가명 정보 기반 학습의 성능을 정밀 비교하고, 원본 데이터 활용 시 AI 성능 개선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중진공과 대구기계부품연구원, 현지 실증 네트워크를 보유한 글로벌 로봇 클러스터는 이번 해외 실증을 시작으로 현지 실증지 활용을 본격화한다. /김승호 기자

기보, 中企 글로벌 기술이전 돕는다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강화 사업 모집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이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도 ‘글로벌 진출기업 역량 강화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16일 기보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해외 기술이전·합작투자·공동연구 등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애로를 해소하고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및 기술사업화 역량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해외 파트너사와 기술이전 기반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체결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으로, 총 10개사를 선정해 기업별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

선정된 기업에는 글로벌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시장환경 분석 및 현지화 전략 수립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이전 계약 관련 법률·규제 자문, 합작투자 및 공동연구 컨설팅, 기술검증(PoC) 전략도출 등 기업의 상황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포스코퓨처엠,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

글로벌 완성차사와 1조 규모 체결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 1조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1조149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2027년부터 2032년까지 5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 경영상 비밀 유지를 위해 고객사는 계약 종료 시점까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계약은 포스코퓨처엠이 2011년

음극재 사업에 진출한 이후 체결한 최대 규모 공급계약이다. 포스코퓨처엠은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체와 GM 등 미국 완성차 업체에 음극재를 공급해왔다. 지난해 7월에는 일본 주요 배터리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에도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6700억원 규모의 인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을 맺었다.

이번 계약은 지난해 10월 체결한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계약과 연계된 성격을 띠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양극재와 리튬 등 배터리 소재 전반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원관희 기자 wkh@

삼성중공업

배관 자동화공장 가동

조선업 첫 스펀 공정 혁신

삼성중공업이 조선업계 최초의 배관 스펀 제작 자동화 공장인 ‘파이프 로봇랩’ 준공식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배관은 선박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핵심 설비다. 배관 제작은 설계 도면에 따라 엘보, 티, 플랜지 등을 용접해 하나의 단위인 스펀로 조립하는 과정을 거친다. 삼성중공업은 배관 설계부터 자동 물류, 고정밀 가공·계측, 정렬, 용접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하는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기에 비전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자동화 생산 체계를 구현했다.

파이프 로봇랩은 연면적 6500㎡ 규모로, 연간 약 10만개의 배관 스펀을 생산할 수 있다. 스펀 제작 공정에 첨단 로봇 기술을 적용해 생산 시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성과 작업 안전성까지 높인 업계 첫 사례로 평가된다.

삼성중공업은 지난해 10월 구축한 ‘엔지니어링 데이터 허브(S-EDH)’를 기반으로 설계·구매·생산 전 부문을 연결하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파이프 로봇랩은 삼성중공업의 3X(A·X·DX·RX) 전환이 생산 현장에 본격 적용된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유혜은 기자 dhalehale@



AI·데이터·연계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하이브리드형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휴대폰 안면인증 개통’ 시행 앞두고 시범기간 확대 검토

과기부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중 이번주 연기 여부 최종결정 계획”

개인정보 침해·기술 안정성 논란 시민단체 반발, 인권위 ‘신중’ 권고 안면인식 성공률 60% 문제 지적도

오는 23일부터 시행되기로 한 휴대폰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가 시범 운영 기간 확대를 위한 재검토 단계에 들어갔다.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정책이 알려진 때부터 개인정보 침해 등으로 논란이 일었다.

16일 <메트로경제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휴대폰 안면인증 개통 정책을 두고 시범운영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오는 18일 통신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통신사와 유통업체 등 주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ChatGPT에 의해 생성된 얼굴 인식을 통해 휴대폰 개통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이미지.

추가 수렴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주 중 공식 의견을 받아 연기 여부를 최종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대표권 근절 등을 목적으로 도입이 추진된 정책이다. 기존에는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신분증 제시만으로 본인 확인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패스(PAS

S) 앱을 통해 얼굴을 촬영해 본인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는 절차가 도입된다. 이 절차는 대면·비대면 개통 모두에 적용될 예정이다.

논란의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과 기술 안정성에 대한 우려다. 정부는 신분증에 등록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

조해 동일한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생체 정보는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으며, 인증 결과 역시 ‘예’ 또는 ‘아니오’ 형태로만 처리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책 시행 소식이 알려지자 시민사회에서는 강한 반발이 이어졌다. 지난 1월 마감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은 5만9660명의 동의를 얻어 현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면 정보는 한 번 유출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한 민감정보임에도, 이를 제 공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규정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 제도 도입에 신중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안면인증을 의무화할 경우 생체인식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전 과정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주체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체 인증 수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술적 한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현재 안면인식 성공률이 약 6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삼 개월 간 필드 테스트에서 인식률을 80%까지 올리기는 했으나 신분증에서 추출한 특징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 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외부 환경이 변수로 작용해 인식률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방안 확대 여부를 종합 검토하는 가운데 시스템 오류 시 가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metro

“편리한 쇼핑 검색” vs “카톡 대화 보조”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 AI 기술 체형

양사 ‘AI 기업 전환’ 선언 플랫폼 구조서 차이점 뚜렷

인공지능(AI)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각자의 핵심 플랫폼에 AI 기능을 빠르게 결합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AI 기업’ 전환을 선언했지만 실제 서비스 사용 경험은 상당히 달랐다.

기자가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보니 네이버는 검색과 정보 탐색에 강점을 보였고,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대화 보조 기능에 초점을 맞춘 모습이었다.

네이버 AI는 검색 과정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가장 컸다. 기자가 네이버 앱에서 여러 검색어를 입력해 보자 기존처럼 단순한 링크 목록이 나열되는 방식이 아니라 검색 결과 상단에 핵심 정보를 정리한 형태의 콘텐츠가 먼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러닝화 추천’을 검색하자 브랜드별 인기 제품과 가격대 정보, 리뷰가 요약된 형태로 먼저 정리됐다. 이어 관련 쇼핑 상품과 콘텐츠가 함께 노출됐다.

특히 쇼핑 검색에서 AI 기능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모습이었다. 상품을 찾는 과정에서 추천 상품과 인기 모델을 묶어 보여주며 탐색 과정을 줄여주는 느낌이 있었다. 단순히 검색 결과를 나열하기보다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먼저 정리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카카오 AI는 카카오톡 환경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컸다. 기자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AI 기능을 사용해 보니 긴 대화를 요약하거나 대화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바로 검색하는 기능이 눈에 띄었다.

여러 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 요약 기능을 사용하자 긴 대화 내용이 핵심 문장 중심으로 정리됐다. 수

십 개 메시지를 모두 읽지 않아도 대화 흐름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었다.

또 채팅 중 특정 키워드를 입력하면 관련 검색 결과나 콘텐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됐다. 별도의 앱을 실행하지 않고 카카오톡 내부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카카오 AI는 검색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따로 실행하기보다 대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AI 기능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두 서비스의 차이는 플랫폼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검색과 콘텐츠 탐색이 핵심 서비스이기 때문에 AI 기능 역시 정보 탐색을 돕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 카카오는 메신저 기반 플랫폼인 만큼 대화 흐름을 보조하는 AI 기능이 중심이다.

/최빛나 기자 vitna@

KT, AI 기반 피싱 의심·차단 시스템 구축

경찰청 통합대응단과 협력 올해 적용... 총 9822건 탐지

KT는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대응단과 협력해 인공지능(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탐지·차단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부터 지능화되는 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AI 기반 피싱 의심번호’ 추출 체계를 공동으로 추진해 왔다. KT 미래네트워크연구소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해 피싱 의심번호를 자동으로 선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분석 결과 실제 피싱 피해 신고 건수의 약 75%가 해당 시스템이 추출한 의심번호와 연관된 번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은 KT로부터 공유 받은 피싱 의심번호를 ‘서킷브레이커’ 시스템을 통해 즉시 차단하고 있다. 서킷브레이커는 피싱 범죄에 활용되는 회

선을 긴급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경찰청과 통신사가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싱 의심번호는 즉시 통신망에서 차단되며 이후 7일 동안 이의 신청이 없으면 해당 번호는 이용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KT는 올해 1월부터 해당 시스템을 적용한 결과 KT망 기준 총 9822건의 피싱 의심번호를 탐지해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통합대응단에 따르면 피싱 의심번호 사전 탐지와 망 차단 협력 이후 경찰에 접수된 전체 피싱 피해 신고 건수는 시행 전·후 6주 기준 1만496건에서 7843건으로 약 25%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이 44%, 대출 방자형 보이스피싱이 40%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피싱 피해 신고 접수 이후 사후 조치가 이뤄졌지만, 이번 협력으로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번호를 초기 단계에서 차단해 피해 예방 효과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김서현 기자

SKT, ‘1인 1 AI 에이전트’로 업무 혁신

지원 시스템·교육 로드맵 마련

SK텔레콤은 ‘함께 만들어가는 변화, AX’란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전사 차원의 AX(인공지능 전환)를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업무 자동화를 넘어 구성원이 직접 AI 에이전트를 개발해 업무 혁신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SK텔레콤은 개발 직군뿐 아니라 비개발 직군을 포함한 전 구성원이 자신의 업무에 특화된 AI를 만들 수 있도록 ‘1인 1 AI 에이전트’를 목표로 지원 시스템과 교육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코딩 경험이 없는 구성원도 AI 에이전트를 개발할 수 있도록 여러 플랫폼을 제공한다. 범용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에이닷비즈’, 마케팅과 데이터 추출에 특화된 ‘폴라리스’,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과 코딩을 지원하는 ‘플레이그라운드’ 등이 포함된다. 구성원은 자연어 입력이나 모듈 조합 방식으로 업무에 필요한 AI 에이전트를 만들 수 있다.

AX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AXMS(인공지능 전환 관리시스템)’도 가동했다. AXMS는 구성원이 제안한 혁신 아이디어와 진행 상황, 피드백을 공유하고 이를 대시보드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SK텔레콤은 AX 아이디어 공모와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시작된 ‘AX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약 180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핵심 프로젝트는 패스트트랙



SKT 구성원이 전용 플랫폼 ‘AXMS’를 활용해 업무 현장에 적용할 AI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 /SKT

로 선정해 올해 3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구성원의 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프론티어 교육과 디자인 캠프, 부트캠프 등 단계별 교육을 통해 실무 활용 능력을 강화하고 상반기에는 해커톤을 열어 아이디어 발굴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추가 AX 프로젝트 선정과 성과 포상을 통해 사례 확산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서현 기자

로봇지능 기술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 시연

NC AI,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공략

NC AI가 로봇 지능 핵심 기술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WFM)’을 성공적으로 시연하며 글로벌 피지컬 AI 시장 공략에 나섰다.

NC AI는 16일 자체 연구 인프라를 활용해 WFM 학습과 검증을 수행하고 주요 로봇 조작 태스크에서 실무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준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WFM은 로봇이 현실 세계의 물리 환경을 이해하고 행동을 예측하도록 돕는 로봇 AI 핵심 기술이다.

이번 모델은 영상 생성과 추론 단계를 거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잠재공간 정보에서 바로 행동을 생성하는 구조를 적용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처리 속도를 높이고 행동 예측 정확도를 개선했다.

성능 테스트에서는 로봇 팔 조작 등 24개 고난도 태스크를 기준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 대비 약 70% 성능을 확보했다. 실제 현장 적용과 연관된 상위 18개 핵심 태스크 기준으로는 엔비디아 코스모스 등 최고 성능 모델의 약 80% 수준의 성공률을 기록했다.

또한 NC AI는 글로벌 모델 파인튜닝에 필요한 GPU 자원의 약 25% 수준만으로 학습을 수행해 자원 효율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향후 WFM 기반 합성 데이터 생성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반도체 등 제조 산업에 특화된 로봇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계획이다. /최빛나 기자

금융당국, 특사경 수사범위 넓힌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속 대응’

조사사건, 신속히 수사전환 가능
증선위 고발·檢이첩절차 일부 생략
수사심의위 참여 인원 구성 조정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에 신속히 착수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개시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고발이나 통보 없이도 조사사건을 수사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돼 수사까지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후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 중 시행하는 것이 목표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특사경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위나 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이라도 대부분 증선위의 고발이나 통보를 거쳐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 검찰이 특사경 수사를 맡길지 결정하는 절차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고 사건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나 금감원의 조사부서가 진행한 사건 전체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판단을 거쳐 특사경이 직접 수사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사건을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사 지연으로 인한 증거 인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함께

정비된다. 특사경 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방식이 일부 바뀐다. 위원 수는 기존처럼 5명을 유지하지만, 참여 인원의 구성을 조정해 심의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것인다는 취지다.

위원회에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총괄과장과 자본시장조사담당관, 공정시장과장 또는 증선위 상임위원이 지명한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금융감독원에서는 조사부서 부처장 가운데 금감원장이 지정한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필요할 경우 증선위 상임위원이 추가로 위원을 지정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위원 2명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회의를 열 수 있으며, 안건 역시 위원 2명 이상의 찬성이나 위원장 제안으로 상정할 수 있다.

또 수사 지연을 막기 위해 회의가 열리면 원칙적으로 당일 의결하도록 했

다. 다만 대면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유서를 첨부해 서면 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조사 부서와 수사 부서 간 정보 교류와 관련된 일부 조항도 정비했다. 기존 규정에 있던 조사 자료 제공 관련 조문은 삭제했다. 조사와 수사를 분리해 운영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한 자료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집무규칙 개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집무규칙 개정안은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키움증권, 발행어음 수신 잔고 1조 돌파

올해 신규 모험자본 6000억 공급

키움증권 발행어음 수신 잔고가 1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말 ‘키움 발행어음’ 출시 이후 석달 만에 이룬 성과다. 올해 신규 모험자본도 6000억원을 공급해 생산적 금융 활성화에 동참할 계획이다.

키움증권은 발행어음 수신 잔고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16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고, 12월 19일 첫 발행어음 상품 ‘키움 발행어음’을 선보였다.

키움 발행어음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수시형과 만기가 정해진 약정형으로 나눠 출시했다. 수시형은 16일 기준 세전 금리 연 2.5%다. 약정형은 세전 연 2.5%~3.3%다. 약정형은 7~30일형부터 1년형까지 총 여섯 가지며 최소 가입금은 100만원이다.

키움 발행어음은 출시 일주일 만에 판매 목표액인 3000억원을 조기 달성했다. 특판이 종료된 이후에도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치했으며, 약 3개월 만에 발행어음 잔고 1조원을 돌파했다. 키움증권은 올해 상반기까지 약 2조원 수신을 목표로

발행어음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신규 모험자본도 6000억원 공급할 방침이다. 중소·벤처·혁신 기업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신기사), 코스닥벤처펀드 등에 대한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도 추진한다.

우선, 미래 국가경제를 책임질 분야에서 활약하는 중소·벤처·혁신 기업에 직접 투자를 강화한다. 이들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 될 지분(Equity) 성격의 투자를 2000억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민간 벤처모펀드에 자금을 공급한다. 키움증권은 민간 벤처모펀드에 총 2000억원을 출자한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다수의 벤처 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 순수 민간 재원으로 조성한 펀드를 뜻한다.

VC들의 세컨더리 펀드에도 자금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VC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세컨더리마켓을 통한 우량 비상장주식 투자기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주요 대학 기술지주와의 협업도 강화한다. 기업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신하은 기자 goche@

한양증권 창사이래 첫 RP 출시

28일물 연 3.5% 금리

리테일 강화에 나선 한양증권이 창사이래 처음으로 특판 RP(환매조건부채권) 상품을 출시한다.

한양증권은 단기 자금 운용 수요를 반영한 이번 특판 RP의 판매가 이날부터 약 1개월간 진행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28일 만기 약정으로 연 3.5%(세전)의 약정 금리를 제공한다. 투자 한도는 개인 최대 1억원, 법인 최대 10억원이며 총 판매 한도는 500억원으로 한도가 소진될 경우 조기 종료된다.

가입 대상은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을 포함한 전 고객이며, 한양증권 4개 리테일 지점(여의도PWM센터·송파RM센터·안산프리미어센터·인천프리미어센터) 방문을 통해 가입 가능하다. 한양증권은 향후 비대면 채널로도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정희 한양증권 멀티영업본부장은 “이번 특판 RP는 고객의 단기 자금 운용 수요에 맞춰 출시한 상품”이라며 “다양한 금융상품 라인업을 통해 고객의 투자 선택지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코스닥 바이오 영향력 확대 기술이전 투자 전략 ‘주목’

글로벌 제약사 특허 만료 이어져
미래에셋 ‘액티브 ETF’ 오늘 상장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기술이전 가능성을 중심으로 종목을 선별하는 투자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의 특허 만료와 기술이전 확대 흐름 속에서 국내 바이오의 성장 기회가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6일 웹세미나를 열고 글로벌 바이오 산업 트렌드와 국내 바이오 투자 전략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는 기술이전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핵심종목으로 투자하는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 전략도 공개됐다. 해당 ETF는 17일 신규 상장될 예정이다.

국내 바이오 산업은 코스닥 시장과 밀접한 구조를 갖고 있다. 국내 바이오 기업 상당수가 코스닥에 상장돼 있으며 코스닥 150 지수에서 바이오 비중도 약 40%로 단일 산업 가운데 가장 높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정책자금 유입 역시 바이오 투자 환경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도 구조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미국 제약사 머크(Merck)의 면역억제제 ‘키트루다(Keytruda)’는 암 치료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대표적 사례다. 또한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Novo Nordisk)와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Eli Lilly and Company)가 주도하는 비만 치료제 시장 역시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

글로벌 제약 산업 구조 변화도 바이오 기회를 확대하는 주목할 만한 요소다.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기 이어지면서 글로벌 제약사들이 외부 기술 도입을 적극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28년 키트루다 특허 만료가 예정되면서 기술이전 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송재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선임매니저는 바이오 투자에서 임상 데이터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상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같은 항체 혹은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성공 여부 중간 결과, 경쟁 약물 대비 확실한 우위가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TIGER 기술이전바이오액티브 ETF는 기술이전 잠재력이 높은 바이오핵심종목으로 투자하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액티브 전략 상품이다. 코스닥 바이오 기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임상 모멘텀과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반영해 종목 비중을 능동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송매니저는 “다른 ETF와 다르게 바이오핵심종목 위주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바이오핵심종목 접근성이 높다”며 “바이오는 임상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과감한 매도 전략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바이오핵심종목이 코스닥에 포진돼 있어 코스닥 비중이 약 80~85%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바이오핵심종목 비중은 70~80% 수준으로 타 ETF 대비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바이오기업은 미래 기술 가치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구조여서 투자 기대감이 크게 반영된다”며 “이러한 특성 때문에 액티브 ETF 전략이 상대적으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ChatGPT로 생성한 ‘바이오 섹터로 몰리는 투자 상황’.

대신증권, 美 장기국채 상품 라인업 확대

30년물·2050년 만기 초장기채 포함

대신증권이 미국 장기국채 투자 상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고금리 채권 투자 수요 공략에 나섰다.

대신증권은 미국 국채 투자 상품을 환오픈형·환헤지형·타겟수익형 등 세 가지 구조로 세분화해 공급을 확대한다고 16일 밝혔다.

환오픈형은 달러 가치 상승에 따른 환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고, 환헤지형은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고 채권 금리 수익에 집중하도록 설계됐다. 타겟수익형은 목표 수익률 달성 시 자동 매도를 통해 수익을 실현하는

구조다.

투자 대상은 미국 장기국채다. 이번 라인업에는 30년 만기 장기채와 2050년 5월 만기 미국 국채 등 초장기채가 포함됐다. 회사 측에 따르면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세전 기준 연 7% 수준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2~3%대 초반 수준에 머무르면서 장기국채를 통한 안정적 현금흐름 확보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대경 대신증권 고객자산부문의 장무는 “미국 장기국채는 금리 하락국면에서 대안 투자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서부발전, AI 점검로봇 본격 도입 현장 설비감시·안전관리 고도화

김포발전본부에 4족 보행로봇 배치
열화상·가스탐지 등으로 이상 점검
안전모 미착용 등 위험징후 포착
24시간 모니터링해 관제센터 대응
설비 점검업무 37% 대체 효과 기대

한국서부발전이 발전소 설비 감시와 안전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점검 로봇을 현장에 본격 투입했다.

서부발전은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로봇 도입은 인공지능 기술과 영상·음향 분석 기술을 결합해 발전 현장을 24시간 상시 감시하는 설비 진단·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발전소는 고온·고압 설비가 밀집해 있고 구조가 복잡해 자율주행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 김포발전본부에 투입된 로봇은 보스턴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가 개발한 4족 보행 로봇 모델로, 열화상·소음과 가스 감지 기능을 탑재해 기존 현장 근무자보다 월등히 정밀한 안전 점검이 가능하다.

이 로봇은 영상 관계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 작업 중 안전모 미착용, 단독 작업, 작업자 쓰러짐 등 이상 상황을 감지해 관제센터에 즉시 알린다. 이를 통해 현장 작업자와 안전관리 부서가 위반 및 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



한국서부발전은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을 한국형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발전본부의 발전설비 감시 업무에 투입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왼쪽 두 번째)이 지능형 자율점검 4족 보행 로봇 투입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부발전

다. 서부발전은 발전 공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로봇을 활용한 실시간 영상 관제 기능을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서부발전은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평택발전본부와 태안발전본부에서 로봇을 시범 운영하며 현장 적용성과 신뢰성, 운영 안정성을 검증했다.

로봇 도입으로 발전소 감시 체계도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로봇은 설비 점검 업무의 약 37%를 대체해 연간 약 7300시간의 업무 시간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반복적인 점검 업무를 로봇이 맡게 되면서 현장 인력은 숙련 기술이 필요한 설비 정비와 안전 관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서부발전은 앞으로 공주건설본부와 여수건설본부 등 신규 발전소에도 로봇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로봇이 수집한 설비 점검 데이터를 기상모형과 연계해 이상 원인을 분석하고 고장을 사전에 예측하는 '지능형 운영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지능형 로봇은 인력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는 핵심 수단"이라며 "향후 기상모형 기술과 결합해 차세대 발전 운영 표준으로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metro

기후부 국제감축사업 설명회

557억 투입... 기업 참여 확대

대통령직속국가기후위대응위원회가 이달 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제감축사업 통합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기후대응위 주최로 2024년부터 개최돼 온 이 설명회는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기업들이 국제감축사업 관련 정부 정책과 지원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질의 사업 발굴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매년 열리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부처별 '2026년도 국제감축사업 예산 및 지원 내용과 양자협정 체결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진다. 이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국제감축사업 관련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에서 국제기구 연계·지원사업을 안내할 예정이다. 질의응답 시간도 따로 마련돼 있다.

2026년 국제감축사업 예산은 ▲국제감축실적 확보를 위한 설치지원사업 ▲신규사업 기획 및 발굴을 위한 타당성 조사 등 총 557억 원이 편성됐다. 부처별로 기후에너지환경부 251억 원, 산업통상부 215억 원, 국토부 39억 원, 산림청 34억 원, 해수부 17억 원이 각각 편성됐다.

/세종=김연세 기자

저속 자율주행 공인시험 첫 구축

한자연, ISO 22737 기반 KOLAS 인정
서틀·라스트마일 평가체계 구축

한국자동차연구원(이하 한자연)이 국내 최초로 저속자율주행 차량의 안전성과 성능을 검증하는 국가 공인시험 체계를 구축했다.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공인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한자연은 16일 협력형운전자동화연구센터가 국제표준 ISO 22737 기반 시험분야에서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 범위 확대를 승인받아 자율주행 서틀버스와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분야의 공인시험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ISO 22737은 도심 공원, 대학 캠퍼스, 산업단지 등 제한된 구역에서 운행되는 저속자율주행(L SAD, Low-Speed Automated Driving) 차량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시속 32km 이하 차량을 대상으로 충돌 회피, 경로 준수, 비상 정지 기능 등 자율주행 시스템의 최소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한자연은 기존 실내(In-Lab) 시뮬레이션 중심 평가에서 나아가 실제 도로 환경을 반영한 시험 체계를 구축했다.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 등 취약 도로 이용자(VRU: Vulnerable Road User) 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시험에 반영해 자율주행차의 인지·판단·



충청남도 천안시 동서면에 위치한 한국자동차연구원 본원 주행시험장(PG)에서 저속자율주행 공인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자전거 운전자를 인식하고 정차한 상황). /한자연

제어 전 과정을 실제 주행 조건과 유사한 환경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정으로 한자연이 발행하는 KOLAS 공인 시험성적서는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100여 개 가입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는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은 해외에서 별도의 성능 검증을 반복할 필요 없이 인증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성과는 산업통상부의 '자율주행 기술개발혁신사업' 지원을 통해 이뤄졌다. 한자연은 올해 2분기부터 국내외 자율주행 기업을 대상으로 공인시험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청년농·고령농 잇는 공동영농모델 키운다

농식품부, 2030년까지 100개소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집적 및 공동경영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목적으로 '공동영농법인' 육성에 나선다. 이에 2026년도 '공동영농확산지원' 사업 대상 농업법인 6개소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선정된 법인은 ▲강원 횡성의 횡성공 ▲전북 김제의 제일유연 ▲전북 부안의 풀공 ▲전남 영광의 흥농정보리 ▲경북 상주의 위천천환경 ▲경북 경주의 대청 등 6곳이다.

이 사업은 농업법인을 중심으로 공동출자와 농지 임대, 농기계 공동 작업 등을 통해 경영 주체를 조직화하고, 농지 집적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유도한다.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해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을 목표로 한다.

올해 사업 대상은 지난해 10~12월 1차 공모를 통해 5개소를 선정한 데 이어 추가 공모를 거쳐 1개소를 더 선발해 총 6개소가 확정됐다.

선정된 공동영농법인에는 시범사업

기간인 2년 동안 법인별 사업 계획에 따라 교육·컨설팅, 기반 정비, 시설·장비 구축, 마케팅 및 판로 개척 등에 최대 20억원이 지원된다. 재원은 국비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구성되며 1년차 40%, 2년차 60%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지원된다.

대표 사례로 선정된 부안 풀공 법인은 계획면 일대 31헥타르(ha) 규모 농지에서 20개 농가가 참여해 콩과 밀을 재배하고 있다. 특히 출자자 5명 전원이 청년농으로 구성돼, 공동영농수익의 일부를 농지 매입에 재투자해 농지를 집적하고 수익을 조합원에게 재분배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경주 대청 법인은 경북 대표 곡창지대인 안강뜰에서 농지 확보를 확대했다. 벼 중심 재배 구조를 콩과 조স্য로 이모작 체계로 전환해 소득을 높이는 공동영농 모델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법인별 경영 형태와 출자 방식, 경작 규모, 지역 여건 등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 및 밀착 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농협, 백설기데이로 우리쌀 소비촉진

청계광장서 시민 1000여명 참여

농협경제지주가 쌀소비 촉진의 일환으로 '2026 사랑을 전하는 해피 백설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농협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백설기를 증정했다. '백설기데이'는 화이트데이를 대신해 쌀 소비를 장려하는 취지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이 지정했다.

이날 행사는 '해피 백설기 데이'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생일파티 콘셉트로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시민대상 하트 백설기 증정 ▲백설기데이 15주년 기념 대형 백설기 케이크 커팅식 ▲생일자 축하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농협은 이날 서울 청계광장 외에도 ▲춘천중학교 ▲농협유통 청주점 ▲창원L



농협경제지주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백설기데이 15주년을 기념하여 시민들에게 백설기 나눠주고 있다. /농협

G세이커스구장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본부와 함께 백설기 나눔 활동을 펼쳤다.

이천일 농협경제지주 품목지원본부장은 "백설기데이가 어느덧 15주년을 맞으며, 우리 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상징적인 기념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농협은 쌀 소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해양바이오뱅크,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획득

해수부, 신소재 상용화·수출 기대

해양수산부는 해양바이오뱅크가 한국인정기구(KOLAS)의 '공인생물자원은행(KS J ISO 20387)' 인정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운영하고 있는 해양바이오뱅크는 해양자원 중 항산화·항균 등 유용한 기능을 가진 소재를 발굴하고 있다. 또 이 같은 소재를 산업계 및 연구기관 등에 공급한다.

공인생물자원은행 인정 제도란 바이오뱅크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생물자원의 수집·보존·저장·분양 등 전 과정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품질 경영 시스템 및 기술적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표준이다. 바이오뱅크의 운영체계와 품질관리, 기술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

로 평가해 국제적 공인력을 보증한다.

해수부는 유용한 효능을 가진 해양바이오 소재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해양바이오뱅크 구축을 시작해 현재 지원형 4개, 가능형 3개 등 7개의 해양바이오뱅크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ISO 20387은 해양미생물(세균·균류)에 대한 국제표준 인정으로, 해양바이오뱅크가 제공하는 해양미생물자원의 품질과 신뢰성이 국제적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국제표준에 기반한 해양생물자원 제공은 화장품, 식품, 바이오헬스 등 다양한 해양바이오산업 분야에서 해양바이오 소재의 상용화 가능성을 높이고, 관련 기술의 사업화, 제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대한홍삼(주)

건강창업의 모든 것!

BH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 파트너 모집

“대한민국 건강을 지켜온 30년의 노하우,
이제 당신의 성공비즈니스가 됩니다.”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이란?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대한홍삼 건강백화점은 인기 있고, 가성비 좋은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을 한자리에 모아 고객이 직접 체험하고,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결합 매장입니다.

• 취급품목

다양한 브랜드 홍삼 / 다양한 브랜드 건강식품 / 다양한 브랜드 건강기기 / 다양한 브랜드 건강의류
다양한 브랜드 건강용품 / 의료기기 등

• 판매방법

매장 / 웹카탈로그(도·소매) / 복지쇼핑몰(회원판매) / 체험방 / 특판 / 방판

차별화된 경쟁력

- ✓ 무자본부터 대형 매장까지
- ✓ 인기 있고 이윤 높은 건강상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 ✓ 자사 TV방송국(브레인TV)을 통해 많은 시간 지속적으로 광고하고 제품 판매를 지원하는 건강강좌 프로그램 제공
- ✓ 웹카탈로그 시스템 지원 (홍보, 신규영업, 매장상품 관리)
- ✓ 복지몰 시스템 지원 (신뢰 기반의 고객 관리, 수익률 창출하는 새로운 기회)
- ✓ 30년 전통! 헛터그룹 및 협력사의 지원과 노하우의 집약 무료교육

창업비용

최저 창업비 (MIN. 398만원)로
최대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창업유형

유형 1. 매장 창업(일반매장, 건강체험관, 건강카페, 영업센터)
유형 2. 무점포 창업

BH 대한홍삼 [주] **창업문의 : 1522-7585**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Since 1996
헛터그룹
Haetter Group

(주)헛터
(주)헛터방송_브레인TV
(주)헛터라이프_헛터복지몰
한삼장홍삼(주)
대한홍삼(주)

경주, 자동차 부품기업 2곳 유치... 산단 활성화·일자리 창출

태웅산업·수시스템과 투자협약
명계3산단 내 생산거점 조성 박차
125억 투자·42명 신규 채용 예정
공장신설·본사 이전으로 산단 활력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 기반 강화



주낙영(중앙) 경주시장이 13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린 '명계3일반산업단지 신규 공장 투자양해각서(MOU) 체결식'에서 김필규(오른쪽) ㈜태웅산업 대표이사, 방예현(좌) 수시스템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경주시는 ㈜태웅산업, ㈜수시스템과 내남면 명계3일반산업단지 내 공장 신설과 본사 이전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13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열렸으며 주낙영 경주시장을 비롯해 김필규 ㈜태웅산업 대표이사, 방예현 ㈜수시스템 대표이사 등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두 기업은 명계3일반산업단지 동일 부지 내 필지를 분할 활용해 신규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태웅산업은 약 7,920㎡ 부지에 77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부품 생산 공장을 신설하고 15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다.

㈜수시스템은 약 3,967㎡ 부지에 48억 원을 투자해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

고 생산시설을 구축하며 27명을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 규모는 총 125억 원이며 고용 규모는 42명이다. 경주시는 이번 투자가 명계3일반산업단지 활성화와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웅산업은 1998년 설립된 기업으로 2000년 경주 외동으로 이전해 자동차와 전자제품 부품을 생산하며 지역 자동차 부품 산업과 함께 성장해 왔

다. 자동차 내장부품과 흡차음 부품, 카페트 열성형 제품 등을 생산하며 현대·기아 등 완성차 업체와 협력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수시스템은 2020년 경남 김해에서 설립된 벤처기업으로 자동차와 전자제품 관련 필터 및 자동차 부품 기술을 기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번 투자를 통해 본사를 경주로 이전하고 자동차 부품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필규 ㈜태웅산업 대표이사는 “경

주시와 기업투자지원과의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신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었다”며 “이번 투자를 계기로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 기업과의 상생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방예현 ㈜수시스템 대표이사는 “경주시의 투자환경과 행정 지원 덕분에 경주에 본사와 생산기지를 구축하게 됐다”며 “지역 기업과 협력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경주 투자를 결정해 준 두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등 기업이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앞으로도 명계3일반산업 단지를 중심으로 자동차 부품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외 우수 기업 유치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jinjon@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부산시 장애인투어 '나래버스' 정기 운행

부산시가 장애인의 관광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시티투어 '나래버스' 정기 운행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이달부터 매주 화·수요일 주 2회 운행되는 나래버스는 부산의 주요 관광지를 순환하는 2개 코스로 나뉜다.

동부산권은 부산역을 출발해 유엔기념공원, 해운대해수욕장, 용두산공원을 거치며 서부산권은 부산역에서 임시수도정부청사, 태종대, 낙동강하구에코센터 등을 경유한다.

나래버스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특장 버스로 운행되는 장애인 전용 시티투어 버스로, 부산시가 2023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부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하동군 화개장터 벚꽃축제 27일 개막

경남 하동의 대표 봄 축제인 '하동 화개장터 벚꽃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화개면 그린나래공원과 삼리벚꽃길 일원에서 열린다. 올해로 27회째다. 지난해 산불 피해로 축제를 열지 못했던 만큼 올해는 프로그램을 더 알차게 꾸렸다. 27일 오후 6시 개막식과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28일에는 '벚꽃노래자랑'과 '벚꽃 DJ 뮤직 페스티벌', 29일에는 '청소년 댄스 경연대회'가 차례로 진행된다. 플라마켓, 차 시음 행사, 별맛 부스 등 먹거리·즐길 거리도 벚꽃길 곳곳에 펼쳐진다.

/하동(경남)=이도식 기자

경북, 297억 투입해 29곳 도시숲 조성 홍성군, LED돔 복합문화공간 조성

14개 시군 26만5000㎡ 규모 추진
기후대응·바람길숲 등 생활권 확충

경북도가 올해 297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29곳에 26만5000㎡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지자체 도시숲'은 42억 원을 들여 추진된다. 도심 유휴부지와 생활권 공간을 활용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녹색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기후대응 도시숲'은 146억 원을 들여 탄소흡수 기능 강화와 도시 열섬현상 완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시바람길 숲'은 100억 원을 투입해 외곽 산림의 신선한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이는 통로를 조성해 대기순환을 촉진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도록 추진된다.

'자녀안심 그린숲'은 9억 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도로변 숲을 조성하고자 추진된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사후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시숲 등 관리지표 측정·평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8억5200만 원을 들여 도내 566곳의 도시숲을 대상으로 생태적 건강성과 가능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9억 원을 들여 도시녹지관리원 36명을 신규 채용해 시설물 점검과 식생 관리를 전담하게 할 계획이다.

최순고 경북도 산림자원국장은 “도시숲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 녹색 기반시설”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도시숲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표 측정으로 도민이 일상 속에서 숲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김준한 기자 kih9@

실시설계용역 착수, 내년 준공 목표

홍성군이 전국 최초로 한국형 LED 돔 형태의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4차 산업 기반 복합문화공간 조성에 나섰다.

군은 16일 'K-락 디지털 스페이스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미래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이번 사업은 홍성 역세권에 총사업비 195억 원(국비 90억 원, 군비 105억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부지면적 6,165㎡, 연면적 2,700㎡, 지상 3층 규모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국내 디지털 콘텐츠 전시·체험 시설은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단순 관람 중심 전시관이 많은 상황이다. 반면 몰입형·참여형 디지털 콘텐츠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용할 지역 거점 시설은 부족한 실정이다.

/홍성(충남)=양대승 기자 zzica@



홍성군이 추진 중인 전국 최초 '한국형 LED 돔' 조감도.

이에 홍성군은 대형 LED 스크린을 활용한 돔 형태의 멀티미디어 전시·체험 공간을 조성해 케이팝 디지털 공연, 몰입형 스포츠 생중계, 리마스터링 영화 상영, 디지털 힐링 체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K-콘텐츠와 실감형 기술을 결합해 흥성을 디지털 문화콘텐츠 거점으로 육성하고 체험형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나주, '1박 2득' 관광 인센티브 호응

시행 보름 만에 2000명 접수

전남 나주시가 숙박관광객 인센티브로 체류형 관광 전환에 가속을 보인다.

나주시가 '2026 나주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숙박관광객 인센티브 사업 '나주 1박 2득'이 시행 초기부터 높은 참여를 보이며 체류형 관광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 3월 1일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한 가운데 3월 15일 기준으로 접수 인원이 2000명을 넘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지원금 규모는 5000만 원이다.

'나주 1박 2득'은 나주를 잠시 들르는 도시가 아닌 머무는 도시로 전환하

기 위해 추진하는 대표 체류 유도 사업으로 나주에서 1박 이상 숙박하고 관광지 1곳 이상을 방문한 편의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운영된다.

동행 인원 기준에 따라 최대 15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원되며 지급 방식은 나주사랑상품권 또는 나주몰 포인트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황포돛배 할인권과 빛가람전망대 모노레일 이용권을 함께 제공해 숙박과 관광, 소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체류형 관광이 실제 지역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정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나주(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술거리미술관' 관람객 15만명 돌파

경주-경북문화관광공사 APEC 특수 타고 개관 후 최대 성과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운영하는 경주 술거리미술관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문화 교류의 장으로 주목받으며 개관 이후 최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경주시와 경북문화관광공사의 공동 운영 아래 진행된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예술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제적 문화 교류 공간으로서 역할을 강화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열린 APEC 2025 경주 정상회의 기간 동안 특별기획전 '신라

한향(新羅韓香)'을 선보이며 한국미학의 정수를 세계에 알렸다. 전시에는 소산 박대성 화백의 수묵 대작 '코리아 판타지' 등이 소개됐으며, 캐나다 총리 부인 다이애나 폭스 카니 여사를 비롯해 17개국 대사 부인 등 주요 인사들이 방문해 관심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박대성 화백과 카니 여사의 만남은 신라 문화와 한국 예술의 가치를 국제 사회에 알리는 상징적 장면으로 평가됐다. 관람객 증가세도 뚜렷했다. 2025년 경주술거리미술관 연간 관람객은 15만3천여 명으로, 2024년 10만9천 명보다 약 41% 늘었다.

/경주(경북)=김진곤 기자

부산시립박물관 개항 150주년 체험교육 운영

올해 개항 150주년을 맞은 부산의 역사를 초등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부산시립박물관은 주말 교육 프로그램 '주말엔 박물관'의 올해 주제를 '미지의 부산-150년 전 국제도시 부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으로 정하고, 3월 21일부터 6월까지 매달 셋째 주 토요일에 운영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화차별로 초등학생 25명이 참여할 수 있으며 오후 1시 30분부터 2시 40분까지 총 4회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어린이가 직접 여행자가 돼 개항기 부산을 탐험하는 스토리 방식으로 구성됐다.

/부산=이도식 기자

보랏빛으로 물드는 광화문... “전 세계 아미 환영합니다”

21일 BTS 특별공연 ‘특수’ 대응

롯데백화점 ‘웰컴 라이트’ 프로젝트 신세계면세점 ‘K-웨이브 존’ 운영 동원F&B 팬 참여형 이벤트 준비 올리브영 단축영업 등 관리 강화 CU 주요 상품 재고 100배 확보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BTS 특별 공연을 앞두고 전 세계 팬들이 서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백화점·면세점·호텔·여행·편의점 등 관련 산업 전반이 이른바 ‘BTS 특수’ 대응에 나섰다. 롯데백화점은 19일부터 22일까지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많은 ‘롯데타운 명동’ 일대를 보라색 조명으로 연출하는 ‘웰컴 라이트(Welcome Light)’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본점과 에비뉴엘 외벽을 BTS 상징색인 보라색 조명으로 밝히는 방식이다.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K-웨이



롯데타운 ‘웰컴 라이트’ 연출 시안.

/롯데백화점

브쇼핑 워크’도 마련됐다. QR코드를 통해 쇼핑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명동 본점 더 헤리티지 ‘헤리티지 뮤지엄’에서 BTS 정규 5집 발매 기념 팝업스토어를 다음 달 12일까지 운영하며 앨범과 공식 응원봉 등 굿즈를 판매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역시 외국인 고객 대상 쇼핑 지원금과 식당가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면세점 업계도 체험형 이벤트로 팬 유입 확대에 나섰다. 롯데면세점은 명동본점 인근 광장에서 보라색 테마 체험 부스를 운영하고 SNS 이벤트와 롤렛 이벤트를 진행한다. 체험 부스에서 받은 리플릿을 지참한 고객에게는 명동본점과 월드타워점에서 멤버십 골드 등급 상향과 쇼핑 지원금을 제공한다. 신세계면세점은 명동점 ‘K-웨이브 존’에서 BTS 매거진과 피규어, 봉제인

형, 마그넷 등 다양한 굿즈를 판매한다. 식품업계도 팬 참여형 이벤트를 준비했다. BBQ는 청계광장점을 보라색 콘셉트로 꾸미고, 동원F&B는 ‘동원참치’ 제품에 동봉된 스티커로 캔을 꾸민 뒤 SNS에 게시하면 항공권을 제공하는 글로벌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호텔·여행업계 역시 공연과 연계한 숙박 패키지와 관광 상품을 잇달아 선보이며 방한 수요 선점에 나섰다.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는 BTS 활동에서 영감을 받은 식음료 메뉴와 객실 패키지를 출시하고 실내 광장 ‘플라자’에 BTS 포토월을 설치했다.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는 하이브와 협업해 ‘BTS 더 시티 아리랑 저니 위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객실 패키지를 20일부터 선보인다. 여행업계도 공연을 계기로 관광 상품을 확대하고 있다. 놀이니버스의 방한 플랫폼 ‘놀월드’는 한강 크루즈, 서울 시티버스 투어, 한복 체험, K팝 촬영지 방문 등 16종 체험 상품을 이달 말까지 7% 할인 판매한다.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도 강화되고 있다. 올리브영은 공연 당일 광화문광장 인접 4개 매장을 휴점하고 인근 3개 매장은 마감 시간을 오후 6시로 앞당겨 운영한다. 스타벅스도 행사 당일 건물 폐쇄에 따라 리저브광화문점과 KT광화문웨스트B1F점 등 일부 매장의 영업을 중단한다. 편의점 업계도 물량 확보와 인력 배치에 나섰다. CU는 광화문 인근 점포 주요 상품 재고를 평소 대비 최대 100배 수준으로 확보하고 인공지능 통역 서비스를 운영한다. GS25는 공연 영향권 160개 점포에 생수·간편식·휴대전화 충전기 등 수요가 높은 상품 중심으로 대규모 물량을 준비하고 일부 점포의 24시간 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세븐일레븐 역시 광화문과 종로 인근 점포에서 간편식과 음료 등 재고를 평소 대비 최대 10배까지 늘렸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metro

신세계백화점 “블루밍 스프링 콘서트’ 관람하세요”

21일부터 4주간 다채로운 무대 마련 손준호 등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 참여

신세계백화점이 싱그러움 봄을 맞아 백화점을 ‘콘서트홀’로 변신한다. 신세계백화점은 오는 21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4주간 강남점·센텀시티·하남점에서 ‘2026 블루밍 스프링 콘서트’를 릴레이로 개최한다.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미니콘서트와 함께 앙상블·재즈·에스닉 퓨전 등 전문 공연팀의 다채로운 무대가 9일에 걸쳐 펼쳐진다. 지난해 강남점에서만 열렸던 블루밍 콘서트를 보기위해 공연기간 3000명 관람객이 찾았으며 공연기간 동안 신규 고객 유입은 2만명을 넘게 웃돌았다. 특히 신규 고객 중 2030 연령층 비중이 50%에 육박하며 젊은 층 공략에 두드러진 효과를 보였다.



신세계백화점 ‘블루밍 콘서트’

이 같은 성과를 반영해 올해 콘서트를 강남점뿐만 아니라 센텀시티와 하남점까지 늘려 ‘신세계의 봄’을 고객들에게 선사할 계획이다. 이번 콘서트의 메인은 국내 정상급 뮤지컬 배우들의 미니 뮤지컬 콘서트다. 손준호(3월 22일, 강남점)를 시작으로 마이클 리(4월 4일, 센텀시티), 윤형렬·권가민(4월 5일, 센텀시티), 카이(4월 11

일, 스타필드 하남), 김바울·이정민(4월 12일, 스타필드 하남) 등 국내 뮤지컬 팬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배우들의 무대가 9일간 릴레이로 이어진다. 또한 3월 30일 강남점에서는 화제의 뮤지컬 ‘렘피카’ 미니콘서트가 특별히 마련된다. 렘피카는 러시아 혁명과 세계대전이라는 격동의 시대 속에서 붓 하나로 자신만의 삶을 개척한 화가 ‘타마라

드 렘피카’의 욕망과 사랑을 그린 작품으로, 브로드웨이에서 작품성과 화제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 미니 뮤지컬 콘서트 외에도 아카펠라 그룹 ‘엑시트’, ‘마크기타 앙상블’, 재즈 뮤지션 ‘노태현 밴드’, 에스닉 퓨전 그룹 ‘두번 째달’ 등 장르를 넘나드는 전문 공연팀들이 함께하며 콘서트의 풍성함을 더한다. 강남점은 파미에스테이션 1층 포켓가든에서 3월 21~22일, 28~30일, 센텀시티는 지하 2층 중앙 광장에서 4월 4~5일, 스타필드 하남점은 1층 중앙 보이드에서 4월 11~12일에 각각 공연이 펼쳐진다. 신세계백화점 영업본부장 김선진 부사장은 “블루밍 콘서트는 신세계백화점을 찾는 고객들에게 화사한 봄을 선사하는 차별화 콘텐츠로 자리잡았다”며 “신세계는 앞으로도 단순한 쇼핑을 넘어 사교의 틀을 깨는 공간과 콘텐츠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SSG닷컴 ‘시그니처 브랜드’ 행사

SSG닷컴이 패션·뷰티·리빙·가전 브랜드가 참여하는 ‘시그니처 브랜드’ 행사를 오는 20일까지 진행한다. SSG닷컴은 매일 브랜드 특가 상품을 선보이는 ‘오늘의 브랜드’ 프로모션을 운영한다. 먼저 17일에는 설화수 단독 기획상품 ‘순행클렌징세트’를 선보인다. 18일에는 크로스 샌들을 최대 50%, 까사미아 가구는 최대 80% 할인한다. 19일에는 ‘SSG개런티’가 적용된 버버리 여성 퀼팅 코트를 특가 판매하고 같은 날 20시 워너그랜드 부산 ‘썬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20일에는 자주 생활용품 최대 60%, 나이키 스니커즈는 최대 70%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 SSG닷컴은 행사카드로 결제 시 7%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브랜드별로 최대 15% 상품할인 쿠폰도 추가로 발급한다. /신원선 기자

컬리, 선케어 등 뷰티상품 최대 82% 할인

23일까지 ‘뷰티컬리페스타’ 진행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는 오는 23일까지 ‘뷰티컬리페스타’를 진행하고 1만여 개 뷰티 상품을 최대 82% 할인한다고 16일 밝혔다. ‘뷰티컬리페스타’는 컬리가 엄선한 뷰티 상품을 매달 새로운 테마로 선보이는 행사다. 이번 페스타에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시즌 특성을 반영했다. 먼저 선케어부터 스킨케어, 베이스 메이크업까지 봄 시즌에 필요한 뷰티 상품을 시즌 특가로 선보인다. 대표 상품인 ‘라로슈포제 유비데아 선크림’, ‘연작 베이스프렙’ 등을 포함해 5만 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쿠폰도 함께 적용된다.

릴레이 브랜드 단독 혜택을 제공하는 ‘브랜드데이’도 이어진다. 16일부터 이틀간 끌레드보보페, 아넷사 등 시세이도 연합은 15% 쿠폰을 증정한다. 18일부터는 정샘물에서 쿼선류 외 베스트 상품 22% 일괄 할인 및 물착 기획 세트를 컬러온리 상품으로 선보인다. 이어 20일부터 22일까지는 스킨수티컬즈가 컬러 첫 라이브 기념 18% 쿠폰 및 컬러 단독 세트를 한정 수량으로 운영한다. 행사 기간 동안 4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선착순 쿠폰도 제공한다. 이 외에도 4만 원 이상 구매 시 5% 할인되는 럭셔리 쿠폰과 5만 원 이상 구매 시 15%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 쿠폰도 함께 운영된다. /신원선 기자

남양유업, 310억 이상 주주환원 추진

112억 배당안 상정... 자사주 취득 남양유업이 주주환원 강화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31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남양유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 배당과 특별배당 등 약 112억원의 배당안을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번 사업연도 결산배당 규모를 약 30억원으로 정했다. 배당성향은 42.25%이며 지난해 배당 액 약 8억 원 대비 대폭 증가한 규모다. 이번 사업연도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된 데 따른 성과를 주주와 나누고, 주주가 배당소득 분리와

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을 고려해 배당 규모를 결정했다. 남양유업은 향후에도 고배당 기조를 이어가며 주주환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아가 특별배당도 추진한다. 앞서 홍원식 전 회장 일가는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회사 측에 피해 배제 공탁금으로 약 82억 원을 맡긴 바 있다. 회사는 이 금액 전체를 주주에게 환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사주 취득도 진행할 계획이다. 남양유업은 12일 200억 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취득한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신원선 기자

던킨 K-디저트 한정메뉴 선포

던킨이 서울역에 ‘윈더스서울역점’을 오픈하고, K-디저트 콘셉트의 한정 메뉴를 선보였다. 던킨은 서울역이라는 입지적 특성과 이용객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 윈더스서울역점에서 만날 수 있는 특화 메뉴를 제공한다. 먼저 한국 전통 음료인 미숫가루에서 영감을 얻어 고소하고 든든한 11가지 곡물을 넣어 만든 ‘서울역 11 곡물 라떼’와 ‘서울역 11 곡물 쿨라타’ 등 음료 메뉴를 출시했다. 또, 한국 전통 간식 경단을 먼치킨으로 재해석한 ‘행운경단 먼치킨 세트(7개입)’와 던킨의 대표 도넛으로 구성된 ‘레디투고 도넛팩(6개입)’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화장품 넘어 의료·헬스케어로... K-뷰티, 외연 확장 나선다

정기 주총 앞두고 사업 전략 강화 에이피알, 사업 목적에 분야 추가 아모레, 더마 브랜드 적극 육성



에이피알(AGE-R) 결합형 디바이스 제품군. /에이피알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요 K 뷰티 기업들이 사업 목적 확대와 이사회 개편 등을 통해 사업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다.

16일 국내 뷰티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중장기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에이피알은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부문을 추가하는 안건을 다룬다. 해당 안건은 의료기기 소모품 개발·제조·판매업, 의료용구 개발·제조·판매업, 의료기기 수리업 등을 포함한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올해 안에 국내에서 에너지 기반 디바이스(EBD) 의료기기 1종을 새롭게 출시할 계획이다. 자체 생산이며 현재 관련 전임상, 임상, 인증 절차를 진행 중인 단계에 있다. '뷰티테

크' 경쟁력을 고도화해 뷰티 디바이스에서 미용의료 영역으로 기업 입지를 넓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에이피알은 뷰티 디바이스 사업에서 지속 성과를 내 왔다. 뷰티 디바이스 사업 매출은 2023년 2162억원, 2024년 3126억원, 2025년 4070억원 등으로

매년 커졌다. 다만 뷰티 디바이스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41%, 2024년 43%에서 2025년 27%로 기록됐다. 뷰티 디바이스 판매 호조와 스킨케어 화장품 인기가 맞물린 결과다.

에이피알 측은 "특정 신규 사업을 즉각적으로 개시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앞으로도 혁신적인 기술이 뒷받침된 뷰티 디바이스로 소비자 접점을 꾸준히 확보해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더마 브랜드를 중심으로 한 '뉴 뷰티' 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오는 26일 개최되는 아모레퍼시픽 정기 주주총회에서 임운섭 더마뷰티 유닛장을 신규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이 상정된다. 임운섭 유닛장은 태평양약품 메디컬뷰티사업(MB) 담당, 태평양약품 대표 등을 거쳐 아모레퍼시픽에서 더마 화장품 브랜드 에스트라를 총괄한 바 있다.

이번 신규 사내이사 선임은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더마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특히 에스트라의 경우, 최근 들어 국내외 더마 시장을 적극 공략해 왔다. 미국, 중국에 이어 올해는 유럽 시장으로 진출국을 늘렸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17개 국가에서 약 680개에 달하는 글로벌 뷰티 전문 편집숍 '세포라' 매장에 순차 입점했다. 지난해부터는 미국 세포라, 중국 티몰 등 글로벌 핵심 국가의 주요 온라인몰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그 결과, 에스트라 브랜드 제품 '아토 베리어365 크림'이 올해 1월 누적 판매량 1000만 개를 달성했다. 이는 지난해 5월 누적 판매량 700만 개를 넘어선 후 가파른 성장세를 입증한 것.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유럽및중동·아프리카(EMEA), 미주, 기타 아시아, 중국 등 해외 사업 전반에서 외형 성장을 이뤘던 가운데, 각 지역에서 에스트라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태광그룹으로 인수되는 애경산업도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오는 26일 정기 주총을 통해 김상준 애경산업 대표, 안정태 애경산업 생활용품 사업부 부문장 등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박진우 애경산업 경영지원부 부문장은 신규 사내이사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박진우 부문장의 경우 애경산업에서 생활용품사업부 직접영업팀장, 경영지원부 경영기획팀장, 미래전략실 실장 등으로 경력을 쌓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애경산업은 지난해 실적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올해 들어 브랜드 현지화에 착수한 상황이다. 미국 최대 유통 채널인 '월마트'를 중심으로 바디케어 브랜드 럽센트와 샤워메이트, 헤어케어 브랜드 케라시스를 현지에서 출시하기 시작했다.

국내 뷰티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에서 벗어나 의료·헬스케어·웰니스 등으로의 영역 확장 흐름이라고 볼 수 있다" 덧붙였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metro

삼바에피스, 비만치료제 개발 출사표

에피스넥스랩-지투지바이오 공동연구 장기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비만치료제 시장에 본격 뛰어들었다.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 플랫폼을 구축해 비만치료제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삼성에피스홀딩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와 비만치료제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 및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바이오의약품 개발사 삼성바이오에피스와 바이오 기술 플랫폼 개발사 에피스넥스랩이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미세구체(microsphere) 기반 약물전달 기술을 활용해, 장기 약효 지속형 비만치료제 개발 및 플랫폼 기술

확보를 위해 체결한 3자 계약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보유한 파이프라인에 대한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도입(license-in)해 제품화 개발을 추진하며,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지속형 세마글루타이드 성분 비만치료제를 포함한 후보물질 2종에 대한 독점적 개발권을 갖고 계약금 및 마일스톤을 지급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에피스넥스랩은 지투지바이오와 장기 약효 지속형 약물전달 기술 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와 지투지바이오는 이후 신약 후보물질

을 포함한 3종을 추가로 개발할 수 있는 우선협상권 보유 조건에도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금액 및 조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같은 날,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투지바이오가 발행하는 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통해 재무적 투자 형태의 협력 관계도 구축했다.

삼성에피스홀딩스 김경아 사장은 "이번 계약은 환자 미충족 의료 수요 해소 위한 다양한 분야의 신약 개발을 통해 당사가 종합 바이오 기업으로 한층 더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투회사 체제에서 각 사의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셀트리온 항암제, 일본 점유율 1위

'베그젤마' 작년 9월부터 성장세

셀트리온에서 판매 중인 항암 제품들이 일본 시장에서 1위를 점하고 있다.

16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 및 현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사진)'가 일본에서 58%의 점유율을 기록해 작년 9월 50% 점유율 돌파 이후 성장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베그젤마는 오리지널(아바스틴)을 포함해 5개 제품이 출시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압도적인 처방 성과를 거뒀다. 베그젤마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보다 앞서 일본에 출시된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쭈마' 성과가 자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허쭈마는 일본에서 76%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2019년 일본에 처음 출시된 허쭈마는 그해 8월 투약 주기를 늘린 '3주 요

법' 허가를 획득한 이후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해왔다. 2021년 2분기 처음으로 오리지널(허셉틴)의 점유율을 넘어서며 처방 1위 자리에 올라선 이후 약 4년 반 동안 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일본 트라스투주맙 시장의 4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에 우호적인 일본 항암 제도 특성을 적극 활용해 판매 성과를 높여 왔다. 일본에서 항암제는 '일본식 포괄수거제'(DPC 제도)가 적용돼 암 치료에 쓰이는 비용 전체를 일본 정부에서 정하게 된다. 이때 의료기관에서는 책정된 의료비를 기준으로 약가가 낮은 의약품 사용 시 절감된 금액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세경 기자



HLB이노베이션, 리드프레임 사업 성장세

영업익·순이익 동반 흑자

HLB이노베이션이 핵심사업인 반도체 부품 분야에서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다고 16일 밝혔다.

HLB이노베이션의 2025년 별도기준 매출은 322억원으로 전년 253억원 대비 약 2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약 8000만원을 기록하며 전년 영업손실 32억원에서 흑자 전환했다.

당기순이익은 약 29억원으로 전년 당기순손실 37억원에서 흑자 전환을 달성했다.

이번 호실적은 '리드프레임' 사업 성장과 함께 원가 구조 개선 및 비용 효율화 노력이 맞물리며 나타난 성과다. 리드프레임은 반도체 칩을 고정하고 전기 신호를 외부로 전달하는 부품이다.

HLB이노베이션은 우선신규고객사를 확보하며 생산 물량 증가에 적극 대응했다. 또 생산 공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설비·장비 투자와 인적 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했다. 반도체 업황 회복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HLB이노베이션은 대외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공정 자동화와 생산 고도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센서 및 전력반도체 파워모듈 등 전장용 리드프레임 제품군을 확대하며 올해도 반도체 사업의 성장세와 실적 개선 흐름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HLB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사업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한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한미사이언스 '텐텐 어린이 음료' 선봬

한미사이언스는 전국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어린이용 균형 영양 음료 '텐텐 키즈영양식'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텐텐 키즈영양식은 어린이 성장에 필요한 탄수화물·단백질·지방 등 3대 영양소와 19종 비타민, 미네랄을 함유했다. 두뇌 구성 성분인 EPA·DHA는 1일 권장량의 10% 수준으로 담았다.

또 저당 2g, 완전 단백질 7g, 포스트바이오틱스 100억 셀 등을 처방에 간식은 물론, 영양 보충용으로도 섭취 가능하다. 코코아 분말을 사용해 초코맛을 구현, 아이들 기호성과 접근성을 높였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번 신제품과 함께 자체 캐릭터 '텐둥이'도 공개한다.

/이청하 기자

'아이디얼 포 맨', 끈적임 없는 선키어 출시

CJ올리브영, 피지 흡착 성분 함유

CJ올리브영은 맨스케어 브랜드 '아이디얼 포 맨'에서 선키어 신제품 '프레시 오일 컷 선 스틱(사진)'과 '프레시 선 올인원'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프레시 오일 컷 선 스틱은 손에 묻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막대형 제품이다. 간편하게 바를 수 있는 형태이며 여러 번 덧발라도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특징이다. 피지 흡착 성분을 함유해 번들거림을 최소화하며 초저분자 히알루론산을 더해 유수분 균형을 유지해준다.

이와 함께 프레시 선 올인원은 스킨케어와 자외선 차단 기능을 하나에 담은 제품이다. 가벼운 수분 에센스 제형을 처방해 피부에 빠르게 흡수된다. 또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세안의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이지워셔블 효과까지 확인했다.

아이디얼 포 맨 관계자는 "남성들은 자외선 차단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끈적임, 번들거림, 답답한 사용감 등으로 선키어를 꾸준히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신제품은 선키어를 일상 속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만들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새로운 이야기, 변함없는 따뜻함

뮤직 드라마

불편한 편의점 1

Always

24
Times



2026.4.3 - OPEN RUN **올웨이즈시어터**

원작 김호연 불편한 편의점 (나무옆의자 2021) | 총괄 프로듀서 황기현 | 각색·작사 김하나 | 연출 정범철 | 작곡·음악감독 김은지
무대디자인 주미영 | 조명디자인 정필균 | 음향디자인 안형록 | 무대제작 드림아트컴퍼니(주) | 조연출 박수연 | 제작PD 박민서

주최·제작 극단 지우 | 기획 (주)지우컴퍼니, (주)제이엘컬처 | 후원 나무옆의자 출판사 waterfall story 극발전소301 | 예매처 NOL ticket | 문의 02-332-4902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응원 '엄!브렐라 에이전시'
중기중앙회가 매출부진 등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전국민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란우산 디지털 캠페인 '엄!브렐라 에이전시'를 펼친다. '엄!브렐라 에이전시'는 코미디언 엄지윤과 아이돌그룹 '크래비티'의 멤버 원진이 MC로 함께하는 전국민 참여형 디지털 캠페인이다. /중기중앙회



LG헬로비전, 경기 지역민 위한 AI 디지털 교육
LG헬로비전은 시청자미디어재단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와 지역 기반 AI 교육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사회의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소상공인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기술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성원 LG헬로비전 상무(왼쪽)와 성경훈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G헬로비전



SKB-서울소방재난본부, 화재예방·재난대응 협력
SK브로드밴드는 화재 예방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소방재난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서울 중구 SK브로드밴드 본사에서 열렸으며 성진수 CSPO(최고안전보건책임자·뒷줄 왼쪽 여섯 번째)와 홍영근 서울소방재난본부장(뒷줄 왼쪽 다섯 번째) 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SKB



KB국민은행, 가문 단위 자산관리 서비스 고도화
KB국민은행은 자산관리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 'KB 와이즈(WISE) 패밀리오피스'를 'KB 더 퍼스트(the FIRST) 패밀리오피스'로 리브랜딩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리브랜딩은 가문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가문 맞춤형 비즈니스로의 전환과 가문 단위의 종합·장기 자산관리 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KB국민은행



우리은행, 'WOORI 가족봉사단' 발대식·봉사활동
우리은행은 직원 및 가족 200여 명이 참여하는 'WOORI 가족봉사단'의 2026년 발대식을 개최하고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5일 회현동 본점에서 열린 발대식에서는 봉사활동 취지 이해와 안전교육을 진행했으며, 조손가정 청소년을 위한 학습용품과 손편지를 담은 키트 포장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우리은행

케데헌, 오스카 2관왕 쾌거... "전 세계 한국인 위한 상"

픽사·디즈니 후보작 제치고
장편 애니상·주제가상 수상
K-콘텐츠, 글로벌 주류문화로



(왼쪽부터)매기 강 감독, 크리스 아펠한스 공동 연출자, L.M.윙 프로듀서가 15일(현지 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케 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로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받은 후 프레스룸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AP·뉴스시

한국의 색채와 리듬이 담긴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세계 영화 산업의 본산인 할리우드의 심장부에서 황금빛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개최된(15일 현지 시각)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매기 강 감독의 '케데헌'은 픽사와 디즈니 등 굴지의 스튜디오 후보작들을 제치고 장편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했다. 아울러 영화의 메인 트랙인 'Golden'이 주제가상까지 거머쥐며 당일 시상식의 실질적인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이번 '케데헌'의 수상은 단순한 작품의 성공을 넘어 문화적 상징성이 매우 크다. K-팝이라는 전 세계적 현

상을 되마라는 장르적 재미와 결합한 이 작품은, 한국 아이돌 그룹이 무대 뒤에서 악령과 싸운다는 독창적인 설정으로 구현해냈다.

특히 이번 수상은 과거 '기생충'이 일궈낸 실사영화의 성과를 애니메이션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고무

적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서사를 고수해온 아카데미가 한국의 고유한 정서와 현대적 대중문화를 핵심 소재로 삼은 작품에 최고 권위를 부여했다는 점은 이제 K-콘텐츠가 글로벌 주류 문화의 '표준' 중 하나로 자리 잡았음을 방증한다.

수상을 위해 무대에 오른 매기 강 감독은 벅찬 감동을 억누르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해 객석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냈다. 그는 "모든 팬에게 감사하다"며 "이 상은 한국을 위한, 전 세계 모든 한국인을 위한 것이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주제가상을 받은 'Golden'은 한국어가 포함된 곡으로, K-팝 특유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음악성이 애니메이션 서사와 완벽히 결합했다는 평을 받았다. 평단은 이번 수상을 두고 "할리우드가 K-팝을 단순히 유행하는 음악을 넘어, 영화적 서사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예술 도구로 인정했다"고 분석했다.

'K-애니메이션'의 새로운 황금기를 알린 이번 수상은 향후 한국 콘텐츠 산업의 지평도를 다시 그리는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최규춘 기자 ch9720@metroseoul.co.kr

현대차, 獨 'EV 급속 충전소' 구축 한림대성심병원, 항생제 내성 국제연구

뉘르부르크링 서킷서 충전소 개소
시즌 개막 맞춰 이달부터 시범운영



박준우 현대차 N매니지먼트실장(상무, 왼쪽), 잉고 뵈더 뉘르부르크링 CEO가 '뉘르부르크링 N 급속 충전소' 개소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현대차

현대차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고성능 브랜드 '현대 N'이 독일 뉘르부르크링 노르트슐라이페 서킷에서 '뉘르부르크링 N 급속 충전소'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녹색 지옥'이라고 불리는 뉘르부르크링은 세계에서 가장 혹독한 주행 트랙으로 손꼽히며 자동차 마니아들의 성지로 사랑받는 서킷이다. 현대차는 뉘르부르크링 서킷에서 일반 고객들이 트랙 주행을 위해 진입하는 '투어리스트 드라이브' 입구 주차장에 충전소를 구축했다.

이 충전소는 직류(DC) 급속 충전기 2대를 갖춰 충전기 1대당 최대 2대씩 총 4대의 전기차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다. 최대 400kW(킬로와트)까지 급속충전이 가능하다. 현대차그룹의

EV 아이오닉5 N과 아이오닉6 N은 800V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충전량 10%에서 80%까지 18분 만에 도달할 수 있다.

현대차는 올해 뉘르부르크링 서킷 트랙 시즌 개막에 맞춰 이달부터 N 급속 충전소를 시범 운영한다. 충전은 브랜드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할 수 있다. /양성호 기자 ysw@

韓-베트남 공동연구사업 선정

한림대학교성심병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도 한-베트남 공동연구사업' 신규과제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과제는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다. '반코마이신 최적 용량·용법 사용'을 위한 해석 가능한 인공지능(AI) 모델 기반 임상 의사결정시스템 다국적 개발 및 임상 검증'을 주제로 한다. 반코마이신의 최적 투여 용량을 결정할 수 있는 의료 지원 시스템을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발하고, 실제 임상 환경에서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코마이신은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감염 치료에 쓰인다. 효과를 내는 농도와 부작용이 나타나는 농도 사이의 범위가 좁아 적정 용량 설정이 중요하다. 환자의 혈

중 약물 농도를 분석해 적절한 투약량을 결정하는 치료약물농도 모니터링 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나 의료진이 직관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지털 도구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결과를 기반으로 '임상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개발하고 병원 전자의무기록과 연동해 실제 사용성 및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반코마이신 치료 효과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을 줄이는 임상적 효과를 입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아울러 다국가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베트남 국방부 산하 의료기관인 베트남 175 군병원과 협력한다. 양 기관은 2023년 한림대성심병원 에크모 센터 방문을 시작으로 감염질환 공동연구 논의를 이어오며 협력 체제를 다져 왔다.

/이청하 기자 mllee236@

우수 아이디어·혁신기업제품 공모전

공영홈쇼핑, 청년·창업기업 발굴

공영홈쇼핑이 '2026년 국내 우수 아이디어·혁신기업제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16일 공영홈쇼핑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전국 청년 및 지역 기반 창업기업 발굴을 통해 지속가능한 벤처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

올해 5회차를 맞이한 올해 공모전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기존 10개 기업 선정에서 장려팀 5팀을 더해 수상 기회를 더욱 늘렸다. 선정 기업에게는 대상 1000만원(1팀), 최우수상 800만원(1팀), 우수상 400만원(8팀), 장려상 300만원(5팀)의 상품개발 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 최우수, 우수상 선정기업 10

팀에게는 TV홈쇼핑 상품화 코칭 및 방송 2회 진행, 수수료 우대·홈쇼핑 영상 제작비 지원 등을 제공한다. 장려상 5팀은 무료로 제품 광고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사이에 홍보 영상이 송출되는 혜택을 제공한다.

지원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자체 아이디어와 기술이 들어간 창작 제품 등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자격심사, 2차 전문가 서류심사, 3차 발표심사(P.T)를 통해 선발을 진행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기업은 내달 3일까지 '핀판대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공영홈쇼핑 관계자는 "벤처 및 스타트업 기업가들의 창업 열정과 혁신 제품에 판로 지원이라는 마중물을 제공하는 것이 본 공모전의 운영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

한국P&G, '채용전환형 인턴십' 모집

내달 17일 오후 1시까지 접수

페브리즈, 다우니, 질레트 등의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한국P&G가 오는 4월 17일까지 '2026 채용전환형 인턴십' 지원자를 모집한다.

지원자는 4월 17일 오후 1시까지 P&G 공식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서 접수 및 온라인 시험 응시를 완료해

인사

◆ **신영증권** ◇부장 승진 △채권영업부 김현경 △산업분석팀 문용권 △APEX 광주 박영미 △준법지원팀 박종욱 △신탁솔루션부 백일순 △프로젝트금융부 서승일 △APEX 대구 손명화 △상품시스템개발팀 예지애 △리스크관리팀 오상운 △헤리티지솔루션부 이영훈

야한다. 이후 서류 합격자는 5월 면접을 거쳐 6월 초 최종 합격하게 된다.

모집 부문은 ▲영업마케팅 ▲재무전략 ▲공급관리 ▲정보기술 등 총 4개 분야다. 학·석사 기졸업자 또는 2027년 8월 이내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인턴십 우수 수료자에게는 정규직 전환 기회가 제공된다. /이청하 기자

부음

▲박수희(향년 만 93세)씨 별세, 손경화·손상화·손종문(서우산업 대표)·손종원(한국ESG평가원 대표·전 두산 전무)씨 모친상, 이상재씨 장모상 = 16일 오전 9시26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9호실(17일부터 12호실), 발인 18일 오전 9시. 02-2258-5967

Where Real NONSAN STRAWBERRIES Sh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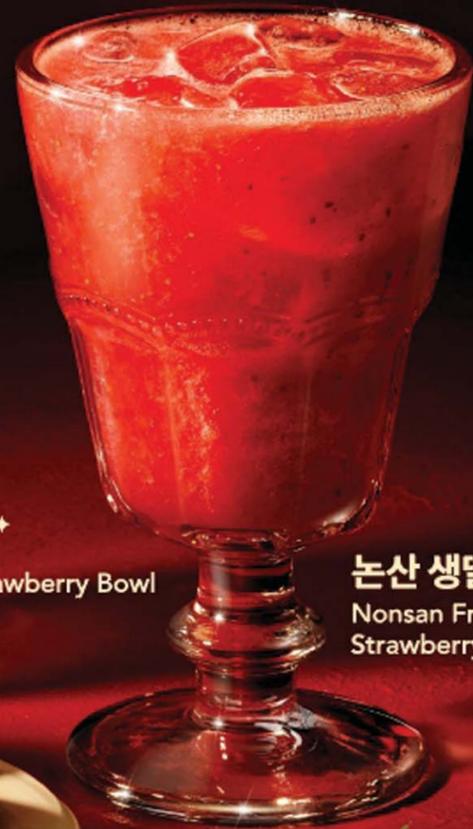
논산 생딸기
바나나라떼[★]

Nonsan Fresh Strawberry
Banana Latte



논산 생딸기볼[★]

Nonsan Fresh Strawberry Bowl



논산 생딸기주스[★]

Nonsan Fresh
Strawberry Juice



생딸기 바나나
푸딩케이크[★]

Fresh Strawberry
Banana Pudding Cake



테슬라 다이너의 출현



연운열의
푸드톡

전세계적인 화제의 인물 일론 머스크가 2025년 7월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인근 산타모니카에 다이닝 식당을 오픈했다. 다이닝 이름은 '테슬라 다이너(Tesla Diner)'다.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다이너'는 단순히 전기차 충전소에 레스토랑을 결합한 부대사업으로 그치지 않는다.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 예고했던 미래형 충전소 개념의 완성체이자, 기술과 인간의 경험이 접점에서 만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다.

테슬라 다이너가 할리우드와 산타모니카라는 상징적인 장소를 선택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곳은 단순히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와 미디어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테슬라 다이너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고객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 있다. 기존 외식업체가 고객의 대기 시간을 '줄여야 할 비용'이나 '불편함'으로 인식했다면 테슬라는 이를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과 소비 시간'으로 재정의했다.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30~40분은 고객

이 해당 공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확보된 체류 시간'이다. 머스크는 이 '필수 불가결한 시간'을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닌 브랜드를 깊이 있게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가치 있는 시간으로 전환했다.

테슬라 다이너가 여타 프랜차이즈 식당과 차별화되는 점은 바로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다.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 4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통해 고객이 선호하는 음악, 자주 방문하는 장소, 차량 내부의 설정 값 등 상세한 사용자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의 과거 주문 패턴과 선호도를 분석해 차량 내부 디스플레이를 통해 맞춤형 메뉴를 제안한다. 단순히 식당에서의 경험에 그치지 않고, 차량과 인간의 생활 패턴 전체를 연결하는 통합적인 경험을 설계한다.

테슬라다이너의 진정한 혁신은 차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의 완전한 통합에서 나온다. 차량이 다이너 반경 15분 이내에 접근하면 자동으로 주문 알림이 발송되고, 운전자는 차량 내 앱으로 결제까지 완료할 수 있다. 고객이 도착하자마자 준비된 음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완벽한 시간 최적화 시스템이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가 팝콘 서빙 등에 참여하며 미래 지향적인 브

랜드 이미지를 시각화한다. 단순히 화제성을 노리는 것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외식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가능성을 실험하는 것이다.

테슬라 다이너의 출현은 국내 외식업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듯하다. 첫째, 공간과 시간을 재설계 해라. 대기 시간을 줄이는 데 급급하기보다, 그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둘째, 소규모 생태계를 구축해라. 단일 매장의 효율성을 넘어 O2O 플랫폼, 유통망, 콘텐츠 제공자와의 제휴를 통해 자신만의 생태계를 구축해라. 셋째, 브랜드 철학을 공간화 해라. 단순한 인테리어를 넘어서 브랜드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낙관'과 같은 철학이 담긴 총체적인 공간디자인이 필요하다. 넷째, 보여 주기가 아닌 실질적인 ESG 경영을 실천해라. 친환경 운영을 마케팅 도구가 아닌 사업 모델의 핵심으로 삼아 환경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다섯째, 경계를 파괴해라. 경쟁상대는 옆집 식당이 아니라 고객의 시간과 주의를 끄는 모든 플랫폼이다.

한국 외식 산업 역시 이러한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읽고 기술과 인간의 따뜻한 경험이 만나는 지점에서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식품기술사, 칼럼니스트

사다리 걷어찬 AI, 청년의 자리는 없다



김지수첩
김서현
(IT부)

인공지능(AI)이 세상을 바꾼다는 장밋빛 전망 뒤에 가려진 서늘한 지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단순히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공포를 넘어, 이제는 '누구의 자리가 사라지는가'에 대한 잔인한 답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는 그 결과가 명확하다. 지난 3년간 청년층 일자리가 21만 개 넘게 증발하는 동안, 50대 고용은 오히려 20만 개 이상 늘었다. 신기하게도 이 격차는 AI 노출도가 높은 금융, 프로그래밍, 전문 서비스 업종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기술이 발전하면 모두가 공평하게 위협받는 게 아니라, 경험 없는 신입부터 정글 밖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소리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연공평행적 기술 변화'라는 고상한 용어를 쓴다. AI가 도입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숙련된 선배들의 노하우와 AI를 결합해 효율을 뽑아내고, 그 과정에서 잡무를 배우며 성장해야 할 신입의 자리는 아예 없애버린다는 뜻이다.

전문직의 상징인 공인회계사(CPA) 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한 1200명 중 고작 300여 명이 실습지를 찾았다는 통계는 충격적이다. 과거 신입 회계사들이 도맡던 데이터 검토와 기초 서류 작업을 AI가 가로채면서, 업계는 더 이상 '키워 써야 할' 신입을 반기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1980년대 전화교환원이 사라진 사례를 들며 이를 기술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도태라고 치부한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전화교환원이라는 특정 직무가 사라진 것과, 전산 업무에 걸쳐 '진입로' 자체가 봉쇄되는 것

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사다리 아래쪽 칸이 통째로 잘려 나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여전히 "그들도 결국 제 갈 길을 찾을 것"이라며 태평한 소리를 한다. 이는 기득권을 쥔 세대가 던지는 무책임한 낙관론에 불과하다.

결국 AI는 기업에는 효율을, 기성세대에게는 업무 경감을 선물했지만, 청년들에게는 노동 시장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조차 뺏아갔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속도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속도를 앞지르고, 그 피해가 오로지 사회 초년생에게 집중되는 구조라면 이젠 진보가 아니라 재앙에 가깝다. '경력직 같은 신입'을 요구하던 시장이 이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신입'을 내놓으라며 청년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다. 사다리가 없어진 세상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우리는 그 잔인한 질문에 답해야 할 때다.

/seo@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7일 (음 1월 29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아주 좋은 일이 벌어지는 하루입니다. 60년생 당신이 만들어내는 결과에 모두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72년생 강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하루입니다. 84년생 신중히 행동하면서 집중력을 높이십시오.



49년생 틈틈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날입니다. 61년생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다른 일이 생깁니다. 73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85년생 기회가 된다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50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62년생 사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74년생 작은 일이 크게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86년생 뜻한 바를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51년생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63년생 귀인을 만나 재물을 얻습니다. 75년생 주변 사람들 때문에 벅찬 하루가 됩니다. 87년생 바라던 것을 마침내 얻게 될 것입니다.



52년생 만사형통하는 하루입니다. 64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76년생 이성운이 좋 불리하나 너무 신경 쓸 일은 아닙니다. 88년생 뒷사람에게 칭찬 또는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년생 자신감이 넘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65년생 일의 능률이 상당히 올라갈 것입니다. 77년생 정신적인 수양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89년생 생각도 못했던 사람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54년생 지금까지 쌓아온 것이 위험에 빠질수도 있습니다. 66년생 깨끗한 마음으로 자초하는 것이 좋습니다. 78년생 쓸데없는 것에 눈을 돌리기가 쉽습니다. 90년생 생식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5년생 뜻하지 않은 지출이 생깁니다. 67년생 선물을 받는 기쁨이 있습니다. 79년생 건강 정보를 접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91년생 공부에 대한 집중력이 생겨 시험운이 따릅니다.



56년생 너무 자만해서는 안됩니다. 68년생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일이 잘 풀리는 법입니다. 80년생 오래 전부터 기다리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92년생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57년생 건강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시기입니다. 69년생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움직이세요. 81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93년생 친구들과 재미있는 영화를 보세요.



58년생 귀인이 오니 그냥 보내지 마세요. 70년생 부모에게 호도하는 것은 자식의 도리입니다. 82년생 운동 부족으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94년생 꼬임에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59년생 지금은 더욱 열심히 해야 할 때입니다. 71년생 게으름 피우면 귀하만 손실을 보게 됩니다. 83년생 귀인의 도움을 받아 일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95년생 추억의 친구를 찾아가보세요.



김상회의四季 자식을 잃은 듯

세상에는 수많은 형태의 사랑이 존재한다. 친구 사이의 우정, 연인 간의 그리움 그리고 반려동물과 나누는 순수한 교감도 사랑의 한 형태이다. 그중에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사람에게 가장 고귀하고도 본능적인 사랑이다. 그렇기에 자식이라는 소중한 존재를 잃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삶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과 같다. 참척이라는 말이 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비극을 일컫는 말이다. 자식을 잃은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평생을 함께 가는 아픔이기에 슬픔을 벗어나게 하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지켜봐 주면서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행동이 더 큰 위로가 된다. 최근에는 가족처럼 여기던 반려동물을 잃었을 때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수년 혹은 십수 년을 함께하며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받은 반려동물을 잃는 것 역시 커다란 상실감을 준다. 가족으로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플 때 걱정하며, 떠나보낼 때 눈물을 흘린다. 반려동물을 잃는 일은 분명 큰 상실이다. 집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익숙한 발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오래도록 공허하다. 어떤 사람에게 그 슬픔은 자식을 잃은 아픔이다. 지인 중 한 사람은 반려동물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일 년 넘도록 깊은 우울감과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기도 했다. 필자의 월광사에서 살아주는 힘이 되는 반려동물을 잃고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그 뒤에 비슷한 아픔에 함께워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다. 자식을 잃거나 반려동물을 잃은 아픔은 삶을 예전과 다르게 만들어버린다. 그러나 사람은 슬픔을 안고도 살아가는 힘과 용기 또한 품고 있다. 그 아픔이 열린 그리움으로 바뀌고 아픔을 딛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이노의 월드피자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로이노의 월드피자를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2	7		8	1				
6			1	3				9
		4						5
4		8		7				
8								6
	7			9				8
7				5				
1	6	7						3
	5	6						2

2		3						9
			3					
		7	1	2				5
		2	4	9	8	6		
		8				2		
	7	4	8	3	9			
7			9	3	6			
					7			
3						5		4

2	8	7	9	1	9	8	6
8	9	6	8	2	9	7	1
1	7	9	8	6	8	2	1
8	8	7	6	2	9	1	9
9	1	9	2	7	8	2	6
2	6	1	1	9	8	8	9
9	2	9	6	7	1	8	8
6	8	8	2	1	7	9	9
7	9	1	8	9	6	2	2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2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6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응암동 675 일대 '신통기획' 확정 1120세대 규모 열린 주거단지 조성

서울시 주변지역 상생 초점 서부선 연계 공원계획 마련 일조영향 등 교육환경 보호

서울시가 응암동 6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통통합기획을 착수 7개월 만에 확정했다. 이로써 대상지는 최고 27층, 약 1120세대 규모의 응암초등학교를 품은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신통통합기획에서는 학교 일조 영향으로 불리한 사업 여건을 극복하고, 학교·주변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주거단지를 조성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서울시는 보행환경을 정비하고 교통체계를 개선해 지역과 연결되는 안전한 통학로와 편리한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일방통행과 시간제 통행 제한으로 차량 통행이 불편했던 가좌로6길은 양방통행으로 변경하면서 가좌로까지 연결해 교통편의를 도모하고, 가좌로 진출입구 주변에 가감속차로와 백련산



서울 응암동 675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신통통합기획 종합구상도. /서울시

로 우회전 전용차로를 신설해 내·외부 교통 영향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지형순응형 대지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최대 26m의 고저 차를 활용해 주차장과 주민공동시설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계단·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보행약자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서부선(신설)과 연계한 공원계획도 마련됐다. 단지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열린 단지를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학교 전면에는 어린이·주민을 위한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개방감을 확보하고, 공원 복합화시설로 개방형 주민공동시설(서울형키즈카페)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등 일조 영향을 고려해 응암초 남측 연접부는 10층,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연접부는 15층 내외 중·저층 주동을 배치하는 등 교육환경을 보호한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네이버클라우드, AI 중심 대학 인프라 혁신

한국외대 업무협약... 연구환경 개선

네이버클라우드가 한국외국어대학교와 협력해 AI 기반 교육·연구 혁신과 AI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선다.

네이버클라우드와 AI 기반 스마트캠퍼스 구축과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네이버클라우드의 AI 인프라와 한국외대의 교육 역량을 결합해 AI 중심 대학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했다.

네이버클라우드의 대학 연구 환경에 최적화된 GPU 인프라를 제공하고 하이퍼클라우드X 기반 AI 행정·학습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외대의 언어역량을 활용한 다국어 행정 서비스 도입도 지원한다.

양 기관은 얼굴 인식 기반 출입·결제 시스템과 네이버웍스를 활용한 행정·학습 협업 환경 등 스마트캠퍼스 구축에도 협력한다. 네이버클라우드 아카데미와 클라우드 플랫폼 교육 과정을 정규 커리큘럼과 연계하고 인턴십, 채용 박람회, 기술 멘토링 등을 통해 AI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스마트캠퍼스 구축 및 AI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기훈 총장(왼쪽)과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대표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네이버클라우드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는 "이번 협력을 통해 AI 기술이 실제 교육과 연구 현장에 활용되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네이버 제2사육인 1784와 같이 한국외대 또한 AI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혁신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강기훈 한국외대 총장은 "네이버클라우드와의 협력은 AI 기반 스마트캠퍼스와 미래형 교육·연구 환경을 함께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빛나 기자 vitna@

교육부, 초·중등 AI 교육담당 교원 역량 강화

AI 교육 전반 연수체계 구축 2029년까지 1만명 이수 목표

교육부가 초·중등 인공지능(AI) 교육 담당 교원을 위한 연수 과정을 처음으로 개발하고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에 대응해 교원의 AI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담당교원 역량 강화 연수 과정' 개발을 2026년 2월 완료하고 5월부터 연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연수 과정은 국정과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미래인재 양성'과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AI) 인재양성 방안(AI for All)'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초·중

등 AI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이 수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동 개발한 이번 연수 과정은 인공지능 기술의 이해와 활용, 윤리 등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교과 수업과 연계된 교수·학습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인공지능 개념과 원리, 최신 AI 기술의 교육적 활용, 인공지능 윤리와 사회적 영향 등을 균형 있게 반영해 AI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연수 체계를 구축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연수 과정은 교원의 수준과 역할에 따라 기초·심화·전문 단계로 이어지는 멀티트랙 구조로 운영된다. 기초 단계

는 AI 기본 개념과 수업 적용 역량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심화와 전문 단계는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이해와 수업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연수 대상은 초등 교원과 중·고등학교 정보 교사,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과목 담당 교원이다. 각 교과 특성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해 교과별 맞춤형 AI 교육 연수 과정으로 설계됐다.

교육부는 오는 5월 기초 연수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심화와 전문 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약 3000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하고 2029년까지 총 1만명의 교원이 연수를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이현진 기자

경기도, 친환경 농업분야 1970억 투입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사업 추진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비율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경기도는 올해 1970억 원을 투입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관질관리원이 발표한 '2025년도 유기식품 등 인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의 유기·무농약 등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5,743ha로 2024년(5,334ha) 대비 7.7% 증가했다. 경기도 전체 경지면적 가운데 친환경 인증면적 비율도 4.0%를 기록해 처음으로 4%대에 진입했다. 친환경 인증농가 수도 5,135호로 2024년(4,737호)보다 398호 늘어 전국에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러한 증가세가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지원 정책의 결과라고 보고,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올해 친환경 농업 확산에 총 1,9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 ▲친환경복합생태농업 실천단지 조성 ▲친환경생태보전 재배장려금 지원 ▲학교·공공급식 친환경농산물 공급 확대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을 강화해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도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에 대한 인식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서울시교육청, 교과서 배부 등 학교 행정업무 지원

인력 채용·위생관리 등 업무 경감

서울시교육청이 교과서 배부와 인력 채용, 공기질·수질 검사 등 학교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행정업무를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지원하며 신학기 학교업무 경감이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11개 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를 통해 추진한 지난

2월 기준 주요 학교 행정업무 지원 현황을 16일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학기 준비 지원 분야에서는 전체 대상 학교의 79.9%인 1031교가 교육지원청 지원을 통해 신학기 시작 전 교과서 배부 업무를 마쳤다. 학교 인력 채용과 관련해서도 기간제 교원 223명(158교), 교육공무직 대체 직원 296명(194교) 채용을 지원

했다. 환경 위생 관리 분야에서는 학교가 개별적으로 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해야 했던 공기질 관리와 수질 정기검사 업무를 일괄 지원하고 있다. 학생 안전 교육 관련해서는 1034교(61.2%)를 대상으로 소방서와 소방합동훈련 일정을 조율했으며, 136교에 대해서는 생존수영 교육을 위한 수영장 안내와 일정 조정 등 행정 절차를 지원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6:41 | 해질 / 18:41

3월 17일 (화)
음력 : 1월 29일

수도권 날씨
2 ~ 15 °C

운동 지수: [Progress bar]
빨래 지수: [Progress bar]
세차 지수: [Progress bar]
외출 지수: [Progress bar]

지역별 날씨: 연천 -4/15, 동두천 -2/15, 가평 -3/16, 양평 -2/16, 용인 1/15, 평택 -2/16, 수원 1/15, 인천 1/12, 파주 -4/15, 서울 2/15, 백령도 3/10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 트럼프 “중국도 군함 보내라”... 중국, 동참 가능성 낮아 /사진 뉴시스
- ▲ “전쟁 중 첫 소득세 인상”... 우크라이나 ‘금융 전선’서도 사투

- ▲ ‘유가 급등’ 중동 전쟁 충격에... 인도 ‘9조원’ 긴급 기금 추진
- ▲ 주일미군 중동 파견 소식에 日 오키나와서 반대 시위... ‘거점화’ 우려

- ▲ 中·베트남 ‘3+3’ 장관급 회의... 외교·국방·공안 협력 논의
- ▲ 日, 美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선박 호위 요구받지 않아... 대응 검토”



BTS 공연에
유통·관광업계
보랏빛 마케팅
L1



Life

화장품 넘어
의료·헬스까지
뷰티기업 영토확장
L2



청년 씨앗 심고, 기술로 가꿔... 미래 위한 '인재 숲' 일군다

살맛나는 세상 이야기 ESG 경영시대

두나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전략 중심에는 미래 세대인 '청년'이 자리 잡고 있다. 디지털자산이 미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만큼, 인재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포용 금융 활동을 전개하는 모습이다. 미래 기술과 미래 인재를 연결해 금융과 기술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디지털자산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두나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나무(친환경 블록체인) ▲청년(인재 양성, 취약계층 청년 지원) ▲투자자 보호(투자자 보호 센터 설립, 금융 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송치형 두나무 회장은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일수록 ESG 경영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두나무가 보유한 기술과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ESG 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살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보유 기술·자원 활용 ESG활동 나서 핵심 키워드 '청년'... 인재육성 강조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지원 '넥스트 잡' 인턴십·창업·금융교육 등 체계적 지원 보안 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청년들의 '현실'부터 '꿈'까지...아낌없는 주는 나무로

두나무는 ESG 핵심 키워드로 '청년'을 설정해 다양한 포용 금융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한 경영 전략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 청년을 돕는 '업비트 넥스트' 시리즈와 웹3(Web3) 보안 인재 양성을 위한 '업사이드(UPSide)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일자리 프로그램 '업비트 넥스트 잡(Next JOB)'은 인턴십과 창업 지원, 금융·진로 교육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도록 돕는다.

지난 3년간 대전·광주·부산 등 주요 지방 도시 거점 기관과 협력해 왔으며 사회적기업, 지역기업, 소상공인 등 총 101개 기업이 인턴십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이달 기준 3년간 누적 지원 인원은 총 1421명이다. 직무 수행 능력과 기술 향상만



족도는 5점 만점 기준 4.53점, 경제적 지원과 미래 준비 지원 만족도는 각각 4.71점과 4.59점을 기록했다.

더불어 '두나무 넥스트 스테퍼즈'는 다중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부채 상환과 취약계층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2022년 10월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시작됐으며 금융 지원과 자산 형성 지원 두 부문으로 나눠 청년들을 돕고 있다.

청년 보안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두나무는 사이버보안 전문기업 테오리와 함께 웹3 보안 인재 양성 프로그램 '업사이드 아카데미'를 운영 중이다.

최근 시작된 4기 과정은 18주 동안 최신 보안 기술을 집중적으로 학습하고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교육생들은 사이버보안과 웹3,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며 실무 역량을 키우게 된다.

◆세대별 맞춤형 금융교육...디지털 자산 이해 확대

두나무는 청년 지원을 넘어 디지털 자산 교육을 통해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디지털 금융 교육 프로그램 '업클래스(UP Class)'다. 청년층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자산 교육을 제공한다.

지난해까지 4년 간 153개의 학교, 총 2만 9338명의 학생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전국 70개 중학교를 시작으로 수능 이후 고3 대상 특강까지 추가해 총 100개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간 금융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찾아가는 업클래스'도 진행하고 있다. 전국 지방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에는 국민 응원 프로젝트 '업비트 Cheer up!' 캠페인도 진행했다. 학업과 진로, 경제 활동 등 새로운 출발선에 선 국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미래세대 응원 캠페인'을 전 세대로 확장한 것이다.

캠페인을 통해 '업비트 응원 장학금'을 마

1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블록체인 행사 '업비트 D 컨퍼런스(UDC)'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 업비트 넥스트 잡 3개년도 참여자가 모여 소감 및 참여 이후의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3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지난 1월 5일부터 29일까지 동작구청과 함께 지역 주민들을 위한 '찾아가는 업클래스'를 진행하고 있다.

/두나무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 제공 금융격차 해소, 건강한 투자문화 형성

투자자보호센터 설립... 고객 자산 지켜 정보보호 투자 확대, 보안인력 강화도

련하고 100명을 선발해 1인당 5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장학금으로 지원했다.

대학생 대상 팀 서포터즈 프로그램 '업투(UpTo)'를 통해서도 업비트의 투자자 보호 활동과 안전한 디지털 자산 거래 문화를 알리는 콘텐츠 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규제보다 앞선 '투자자 보호' 움직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투자자 신뢰 문제도 산업의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두나무는 정부 규제 이전부터 이용자 보호 체계를 구축해 왔다. 금융당국이 2024년 7월 19일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했지만 두나무는 이미 2021년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Upbitcare Center)'를 설립했다. 같은 해 업계 최초로 24시간 운영되는 보

이스피싱 전담 콜센터를 개설했으며, 실시간 이상거래감지시스템(FDS)과 입출금모니터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는 등 이용자 보호 활동을 체계화하고 있다.

두나무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FDS를 통해 이용자 자산을 보호한 금액은 누적 1450억원에 달한다. 또한, 2020년 이후 금융기관과 수사기관과 협력해 총 700여 명의 피해자에게 약 140억여 원의 피해액을 환급했다.

정보보호 투자 규모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정보보호 공시에 따르면 두나무의 2024년 정보보호 투자액은 약 148억원으로, 전체 정보기술(IT) 투자액 1543억원의 9.6%를 차지했다.

보안 인력도 강화하고 있다. 2024년 기준 두나무의 정보보호 전담 인력은 33.6명으로 2021년 9.9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정 CISO는 "정보보호는 사고 이후 대응보다 사전에 어떤 준비를 했는지 경쟁력을 결정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자산 보호와 신뢰받는 서비스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메트로 한줄뉴스



▲손흥민·이강인·김민재 선발...홍명보호, 3월 A매치 최정예 소집 /사진 뉴시스
▲삼성, 매닝 대체 선수로 'WBC 호주 대표' 오러클린 영입...6주 계약

▲프로야구 경기, CGV 극장 단독 생중계...매주 일요일 2경기
▲김시우, PGA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공동 50위...우승은 캐머런 영

▲'프로당구 왕중왕전 3연패' 김가영 "내 무기는 꾸준함...목표 향해 달릴 것"
▲아이스하키 HL 안양, 아시아리그 '2위'...日 닛코와 4강 PO